

1. # 러시아 벌판

지평선이 보이는 러시아 평원. 끝도 보이지 않는 길옆으로 울창한 숲이 우거졌다.

협곡을 빠져나와서 길게 늘어선 마차행렬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조선 상단과 마차를 탄 역관의 모습이 보인다. 마부 옆에 앉아있는 종식이(15세)가 보인다.

쏟아지는 졸음을 참아보지만 순식간에 고개가 꺾이고 놀라서 다시 정신을 차리기를 반복한다.

말과 사람들이 지쳐있다. 덜컹 거리는 마차 속에서도 책을 보고 있는 역관. 가끔 마차 밖의 풍경을 돌아본다.

선두에선 마차를 끌고 있던 말이 힘을 잃고 쓰러진다. 연쇄적으로 뒤따르던 마차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린다.

일제히 마차를 세우는 수신호를 보내는 마부들.

선두에 앞서가던 길잡이 말이 빠르게 역관의 마차로 달려온다.

선두기수

역관 나오리! 선두마차가 쓰러졌습니다. 아무래도 내일까지 도착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역관

그래... 어차피 위험한 계곡은 지나왔으니 오늘은 그만 쉬자. 하루 늦어진다고 큰일이 나겠느냐.

선두기수

네! 속히 짐을 풀 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있던 종식이가 재빨리 마차 위에서 고개를 드리밀며

종식이

(눈치 빠르게) 나오리 불을 피울까요? 가비차를 가져왔습니다.

역관

(웃으며) 가비가 그리운 걸 어찌 알았느냐? 이제 네놈이 나를 앞서가는 구나.

신이난 종식이가 마차에서 뛰어내려 숲을 휘 둘러 보더니 숲속으로 사라진다.

역관은 마차의자 밑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내서 살펴본다. 보따리 속엔 금띠가 둘러진 서찰이 들어있다.

조심스럽게 다시 의자 밑 다른 짐들 사이에 숨긴다.

<화면전환>

숲속을 뒤흔으며 마른 가지들을 줍고 있는 종식이. 벌써 한 꾸러미를 묶어 났다.

다시 한 꾸러미를 묶고 둘 다 짊어지는데, 탕 탕 탕 타타탕.

요란한 총소리가 들리더니 멀리 상단 행렬에서 비명소리와 고함소리 말울음소리들이 뒤섞인다.

종식 나무를 팽개치고 미친 듯이 달린다.

숲을 빠져나오는데 총알이 종식을 스쳐간다. 놀란 종식은 자신도 모르게 엎드렸다.

고개를 들어 보면 이미 상단 마차에는 불이 나고 있었고 화적떼들 말이 온 사방을 뛰어다니고 있다.

화적떼들은 모두 털옷을 입었고 털모자를 쓰고 있었다. 종식은 수풀 속에 몸을 숨기고 역관을 찾았다.

상단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일부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화적떼들은 쓰러진 사람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총을 쏘아댄다.

그때 멀리 마차 옆에 쓰러져있는 역관이 보인다. 마치 기어가듯 역관에게 다가가는 종식.

역관이 살아있다. 종식은 옆에 널 부러져 있던 거적을 뒤집어쓴다.
가까이 말발굽소리와 시끄러운 러시아 목소리들이 스쳐가고 총소리가 들린다.
그럴 때 마다 움찔거리며 더욱 숨죽인다.
점점 말과 마차소리가 멀어진다. 조심스럽게 거적을 젖히자. 먼지 냄새와 피비린내가 코를 찌른다.
종식은 시체들 속에서 물병을 찾았다. 입술에 물기가 돌아 역관은 종식을 향해 입을 열었다.

역관

종식아!

역관의 상처에서 피가 솟구친다. 종식은 상처를 눌러 피를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종식

나으리 힘을 내십시오. (상처를 더욱 짝 누르면서) 이제 괜찮을 겁니다

종식의 눈엔 이미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

역관

함정이다. 화적때 목표는 상단이 아니다.

역관의 말에 놀라 주변을 둘러보는데 마차의 짐들과 상단의 짐들은 쓰러져 있을 뿐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

역관

왕의 서찰을 가져갔어. (숨이 차오른다)

종식

나으리! 정신을 차리십시오. 나으리!

역관

(숨을 몰아내면서) 어서 한양으로 가거라. 단이가 역적의 딸로 죽게 된다. 단이를 지켜다오..

역관은 품속에서 피 묻은 형검에 쌓여있는 만년필을 건넸다.

역관

니가 단이를 품고 있지 않느냐...

종식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며) 나으리 그건...

역관

단이도 널 따를 거다. 가서 단이를 데리고... 러시아로... 오...너...라.

종식

(역관을 흔들며) 나으리! 나으리!

역관의 마지막 남은 모든 숨을 쉴아내면서 종식에게 부탁한다. 그리고는 눈조차 감지 못한다.
힘이 빠지는 종식. 만년필을 내려다본다. 만년필에는 단이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있다.
마치 전쟁터에서 혼자 살아남은 듯 혼자 서있는 종식이.

2. 타이틀 백 화면 몽파쥬

자욱한 연기가 살짝 걷히면 커피콩이 뜨거운 팬 위에서 볶아지고 있다.
커피 분쇄기 속에서 갈려져 나오는 커피가루들.
물이 끓고 있는 주전자.
웅으로 만들어진 거름 채를 손질하는 일리치.
웅 거름 채 위에 쏟아지는 커피가루들.
가는 물줄기가 수증기를 뿜으면서 마른 커피가루를 적신다.
컵케이크처럼 부풀어 오르는 커피와 거품.
한 방울씩 유리주전자에 떨어지는 커피 액. 진한 커피 방울들이 모여 유리주전자를 채운다.
장면들 위에 겹쳐지는 타이틀 자막들.

- 타이틀 인 -

加比 가비 < the coffee >

3. # 고급 식당 안

주방에서 스프가 든 그릇을 들고 오는 웨이터 식당으로 나가기 전에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내서 스프에 탄다.
스프그릇은 어느 러시아 군인 앞에 놓여진다. 사람들과 식사중인 러시아 군인 아무것도 모른 채 스프를 맛있게 먹는다.

4. # 식당 화장실

러시아 군인이 화장실 안으로 뛰어 들어온다. 번기에 대고 모든 걸 토해내는 군인.
조용히 화장실 문을 잠그는 남자의 손.
일어서서 세면대로 돌아서는 러시아 군인. 그때 갑자기 날아드는 남자의 발이 군인의 얼굴을 사정없이 찬다.
쓰러지는 러시아군인에게 달려들어 연속으로 가격한 뒤 손을 뒤로 묶고 목을 조인다.
전문가임을 알 수 있는 번개 같은 동작들이다. 일리치다.

일리치

누가 가져갔어?

공포에 떠는 눈빛으로 모른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고통스러워하는 군인

일리치

눈앞이 어두워지면서 몽롱해질 거야. 살아 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 누구야?

눈이 풀어지는 러시아 군인.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끄덕인다. 목을 풀어주는 일리치

군인

(꽤끔 거리며) 야수! 야수가 한 짓이야!

일리치

(알았다는 듯 등을 툭툭 두들겨주며) 잘 가 친구.

순간적으로 군인의 목을 비틀어 꺾어 버린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죽는 군인.

5. # 러시아 어느 카페 안/밖

야수 장교와 얼음여우가 마주앉아있고 따냐와 얼음여우 일당이 좀 떨어진 곳에 둘 을 보고 있다.

얼음여우가 야수 가까이 앉으면서 귓속말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야수.

야수가 일어나면서 손을 내밀고 얼음여우가 악수를 하며 포옹을 한다. 거래가 잘 이뤄진 듯 한 분위기다.

얼음여우 일당들은 서로를 보며 기뻐한다. 야수가 카페를 빠져나가고 얼음여우가 일당 쪽으로 온다.

얼음여우

(웃으며) 야수와 거래하기로 했다. 따냐! (따냐를 향해) 이번 기차에 어떤 보급품들이 오는지 알아봐! (다른 일당들에게) 모두들 술집으로 모여라.

얼음여우는 로스키를 데리고 나간다. 서로들 기뻐하며 뒤따라간다.

슬쩍 빠지는 따냐. 누군가를 찾는 듯 주변을 살피는 따냐. 여종업원 쏘냐가 따냐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짓한다.

얼음여우가 돌아본다.

로스키(러시아어)

(얼음여우에게) 오늘 커피콩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쏘냐가 커피 자루를 가져온다.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는 얼음여우와 일당들.

커피를 확인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척 하다가 창밖을 살피던 쏘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몰래 따냐를 데리고 주방 안으로 들어온다. 주방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쏘냐와 따냐.

그들을 보고 있는 누군가의 시선.

<카페 밖>

카페 뒷문 앞. 마차가 기다리고 있다. 문을 열어주는 쏘냐. 따냐가 빠르게 올라타면 급하게 떠나는 마차.

6. # 마차 안

마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야수장교. 따냐가 안기자 정신없이 키스를 퍼붓는다.

따냐

수고했어요. (야수장교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준비는 잘 됐겠죠? 이제 얼음여우만 잡으면 모든 게 끝나요.

야수장교

얼음여우를 죽여주겠어. 일당들을 모두 잡을 거야 걱정 마!

따냐

고마워요 야수!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갈 거예요. 사랑해요.

야수장교

세상에 모든 걸 바칠 거야. 러시아군의 명예를 걸고 당신을 구하겠어! (따냐에게 키스)

7. # 얼음여우의 술집

거대하고 화려한 술집 안 풍경. 다양한 사람들의 무리가 보인다.

술과 마약, 환락에 미쳐 뒤엉켜있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술집 안으로 들어가는 따냐.

기도처럼 보이는 관리자들이 따냐의 길을 터준다. 몇 개의 철문을 지나자 얼음여우의 방이 나타난다.

거대한 방문이 열리고 술집과는 전혀 다른 마치 고가구 전시장 같은 분위기의 공간이 나온다.

술잔을 기우리면 얼음여우의 얘기를 듣고 있던 일당들 일제히 따냐를 쳐다본다.

얼음여우 옆에서 술병을 들고 공포스러운 표정으로 서있는 나타샤(어린 조선 소녀)와 눈이 마주치는 따냐.

얼음여우

(나타샤를 보는 따냐를 보며) 은여우가 이런 곳에 오면 안되지... (일당들에게) 모두 나가.

두사람의 눈치를 보며 나가는 일당들.

따냐

나타샤도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돼.

얼음여우

비싼 돈을 주고 산 하인이야.

따냐

(얼음여우에게 보석주머니를 던지며) 자! 이제 내가 지불했으니까. 내 맘대로 하겠어.

얼음여우

여기선 내가 법이야. 날 어기지마 따냐!

따냐

(화가 나서) 날 갖고 싶으면 귀족처럼 행동해.

얼음여우

(설득하듯) 이제 돈만 있으면 귀족이 되는 세상이야.

따냐

(단호하게) 여자를 물건처럼 다루는 귀족은 없어.

얼음여우

(따나에게 위압적으로 다가서며) 널 이렇게 은여우로 키운 건 나야. 니가 내 여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야. (따나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내 인내심이 끝나기 전에 결정해.

(손등에 키스하며) 더 늦기 전에

따나

(얼음여우의 눈을 외면하면서) 나타샤를 데려 가겠어

얼음여우

(인정하는 듯) 좋아! 앞으론 나타샤를 은여우의 친동생처럼 대해주지. (뒤로 물러나면서 다시 보드카 잔을 든다) 내가 선물을 줬으니 내게도 선물이 있어야지. 새로운 계획을 말해봐.

따나

(흥분을 삭이며 차분하게) 전쟁 때문에 당분간 무역선들이 끊어 질 거야 커피를 사야 돼! 지금보다 가격이 열배는 뛴 거야. 이번에 오는 러시아군의 보급품에 군용커피가 실렸어. 그걸 빼돌려야해!

얼음여우

(다시 보석 주머니를 돌려준다) 러시아에 있는 커피를 모두 사!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따나 얼음여우를 노려보고 나타샤에게 손짓 한다

따나

(나타샤에게 조선말로) 이리와 어서!

나타샤의 손을 끌고 나가려는데

획! 팡! 따나의 얼굴 옆을 스쳐 벽에 꽂히는 단검. 얼음여우가 던졌다.

얼음여우

내 앞에선 조선말 하지 마!

문을 닫고 나오는 따나. 공포에 질려있는 나타샤를 꼭 안으며

따나

걱정마! 야수가 얼음여우를 죽일 거야.

나타샤

조선에 가고 싶어.

따나

내가 데려가 줄게!

<화면전환>

술집을 빠져나가는 따나와 나타샤의 모습을 길 건너에서 보고 있는 어느 신사의 뒷모습.

8. # 야수장교 방

누군가 쓰러진 남자를 끌고 가는 발이 보인다.

능숙하게 밧줄 매듭을 매는 손놀림. 천정 위 상들리에가 걸린 고리로 지나가는 밧줄.

들려올라가는 남자의 발. 당겨지는 밧줄.

꽤끔거리는 소리와 흔들리는 발밑에 아슬아슬하게 의자를 받쳐주는 남자.

손이 묶인 채 목이 매달려진 사람은 야수장교다. 의자위에서 까치발을 하고 겨우 숨을 쉬고 있다.

이미 심하게 맞은 듯 상처투성이다. 밧줄을 고정시키는 남자. 일리치다.

일리치

어딤어?

야수

내가 아냐 일리치! 르윈스키야!

의자를 쓰러뜨리는 일리치. 목이 조여지자 허공에서 발버둥 치는 야수.

야수주변을 빙빙 돌다가 다시 의자를 발밑에 받치는 일리치.

일리치

참을 만큼 참았어. 날 화나게 하지 마! 어딤어?

야수

꽤!꽤! 몰라 정말 꽤!

일리치

(다시 의자를 빼며) 어서말해! 목숨을 걸만큼 중요한건 아니잖아!

야수 정말 죽을 것 같다. 의자를 다시 가져가는 일리치.

야수

꽤..꽤.. 저기 꽤..꽤.. 그림 뒤에 금고 꽤..꽤..

그림을 내리면 금고가 있다. 문을 열면 매화무늬가 새겨진 금괴들과 봉인된 편지가 있다.

금괴들과 편지를 가방에 챙겨 넣는 일리치

일리치

나를 속이지 말고 죽였어야지.

의자를 차버리는 일리치. 목 매달린 채 발버둥치는 야수. 요동치던 야수의 몸이 굳어진다.

일리치 금괴 하나를 바닥에 던진다.

그때, 열쇠 열리는 소리가 난다. 그 소리를 듣고 일리치는 창문으로 빠져나간다.
따나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따나

(밝은 목소리로) 야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경쾌하게 들어오던 따나. 야수가 목매단 모습을 보고 놀란다. 달려가 보지만 이미 야수는 죽었다.
바닥에 떨어진 금괴를 집는 따나. 매화무늬가 새겨진 금괴다.
창문 밖에서 따나의 모습을 확인하는 일리치. 조용히 창밖 비상계단으로 사라진다.
<페이드 아웃>

9. # 러시아 별판 / 기차 안

<페이드 인>

기차가 별판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다.
장거리 기차여행에 지친사람들이 이곳저곳 쓰러지듯 의자에 기댄 채 자고 있다.
기차 객실 밖.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방을 챙기고 있는 일리치.
매화무늬가 새겨진 금괴와 편지들을 챙기고 옷 속에 칼과 총도 숨긴다.
객실로 들어가는 일리치 빈자리를 찾아가 가방을 바닥에 내리고 앉는다.
그때 앞 칸에서 남자 두 명과 여자 한명이 건너온다. 머플러들과 짐들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일리치는 신경 쓰이는지 품속에 총을 잡는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자 의자에 기댄 채 잠을 청해본다.

10. # 기차 밖

객실을 지나왔던 사람들. 얼음여우 일당과 따나다. 다음 칸은 화물칸이다.
따나, 화물칸밖에 연결된 고리와 사다리를 잡고 화물칸 문 쪽으로 간다. 달리는 열차가 위험해 보인다.
문을 열고 화물칸 안으로 들어가는 따나. 곡식 같은 자루들이 잔뜩 쌓여있다.
자루하나를 칼로 찢는다. 쏟아지는 곡물을 손에 담아 확인하는 따나. 커피생두다.
문에 매달려 얼음여우 일당에게 소리친다.

따나

커피가 가득 실렸다. 시간이 없어 어서 연결핀을 뽑아!

따나의 소리를 확인하고 일당들은 짐 속에서 공구들을 꺼낸다.
객실과 화물칸이 연결된 고리를 뽑아내려고 한다. 그런데 연결고리가 용접되어있다. 놀라는 일당들.

일당1

(따나에게) 연결고리가 용접됐어. 분리할 수가 없어.

사다리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따나. 용접 된 걸 확인하고 밖을 본다.

따냐

거의 다 왔어. 시간이 없어. 앞에 객실 고리를 확인해! 빨리 열차를 분리해야 돼.

바쁘게 다시 객실로 뛰어 들어가는 따냐와 일당들.

<화면전환>

객실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는 일리치

맨 앞에 머리를 휘날리며 뛰어오는 따냐를 보는 일리치. 이번에는 얼굴을 가릴 틈도 없이 뛰어간다.

다시 품에서 총을 잡는 일리치. 따냐와 일당들이 객실 밖으로 빠져나간다.

뭔가 감지한 일리치. 상황을 살피려고 가방을 들고 일어난다.

<화면전환>

객실사이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따냐. 이번엔 핀으로 고정되어있다.

물러서서 일당에게 지시하는 따냐. 핀을 뽑아서 분리하는 일당들. 앞 칸 객실과 멀어지는 기차.

기관차에 연결된 객실과 화물칸이 연결된 객실이 멀어지면서 기관차는 거대한 다리를 향해 간다.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화물칸. 따냐가 하늘을 향해 총을 두 번 연속으로 쏜다.

기관차는 다리를 지나가고 화물칸과 객실은 다리근처에서 멈춰 선다. 그때 폭발음이 들리고 다리가 끊어진다.

숨어있던 얼음여우일당들이 마차들을 몰고 기차로 몰려든다.

<화면전환>

총소리와 폭발소리에 놀라는 사람들, 기차가 멈춰 서자 객실 안은 아수라장이 된다.

객실 밖으로 빠져나온 일리치. 이미 기차는 벌판위에 서있다.

그때 얼음여우 일당들이 기차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인다.

총을 꺼내고 기차위로 올라가는 일리치. 가방을 배낭 매듯 등에 진다. 기차위에서 상황을 보는 일리치

얼음여우일당은 짐마차위에 커피자루를 나눠 실고 있고 객실에 있는 사람들은 기차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화물칸과 객실칸 위를 오가며 상황을 보고 있는 일리치. 아무도 일리치를 보지 못한다.

일리치는 일당들이 타고 있는 말을 유심히 보고 있다.

따냐가 말을 타고 있다. 따냐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그 위로 다가가는 일리치.

따냐의 말을 향해 뛰어내린다. 갑작스럽게 올라타는 일리치에게 놀라는 말 앞발을 치켜들면서 날뛴다.

뒤에서 따냐를 꼭 껴안고 말을 진정시키는 일리치. 일리치의 공격에 놀라는 따냐

일리치(러시아어)

미안해! 말 좀 빌리자구.

말을 진정시키는 중에 이미 얼음여우일당이 따냐와 일리치를 둘러싼다.

따냐의 머리에 총구를 가져가는 일리치. 화가 난 따냐.

따냐(러시아어)

(일당들을 향해 소리치며) 그냥 쫓아버려. 어서 쫓!

일리치(러시아어)

(따냐에게) 조용히 해! (일당들에게) 너희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 난 여길 조용히 떠날

거야. 길을 비켜

따냐(러시아어)

(일당들을 향해) 얘기 듣지 마 어서 썩!

일리치(러시아어)

(따냐를 더 조이며) 조용히 해!

일당들이 따냐의 말을 듣고 다시 무기를 조준하는데

얼음여우(러시아어)

(버럭) 총 내려! 다치게 하면 다 죽여 버리겠다! 물러서!

얼음여우가 무리 앞으로 나온다.

일리치

(얼음여우를 보고 조선말로 혼잣말처럼) 저건 뭐야?

일리치의 조선말에 멍칫 놀라는 따냐.

따냐

(일리치만 들리게 작은 소리로 조선말로) 두목이야.

일리치

(따냐의 말에 깜짝 놀라며) 조선?

따냐

총 잘 썩?

느닷없이 물어오는 질문에 잠시 멍칫하는데

따냐

총 잘 썩냐고?

일리치

(당황하며 따냐를 향해) 이 정도에서는 실패하기 어렵지

따냐

아니~ 나 말고 저기 저 두목 맞출 수 있어?

일리치

난 여기만 빠져나가면 돼

따냐(러시아어)

(일당을 향해) 뭐하는 거야 바보들아 어서 썩!

갑자기 일당들에게 소리치는 따냐의 모습에 당황하는 일리치

따냐

(일리치에게 작은 소리로) 두목을 맞추면 도망가게 해줄게.

갑작스럽고 황당한 상황이 잘 파악이 안 되는 일리치

얼음여우(러시아어)

(일리치를 향해) 그녀를 내려줘. 길을 열어주겠다.

따냐

(작은 소리로) 믿지 마. 바로 죽일 거야. 저기 숲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해

일리치(러시아어)

(따냐가 이해안되지만 얼음여우를 향해) 저기 숲을 향해 가는 길을 먼저 열어라
안전해지면 풀어 주겠다.

얼음여우의 눈치를 보는 일당들.

따냐

(조용히 일리치에게) 안장 오른쪽에 장총이 있어

오른쪽을 내려다보는 일리치. 장총을 확인하고 뽑는다.

따냐

그거면 맞추기 쉬울 거야.

일리치

(황당해서) 같은 편 아니야?

따냐

오늘 저놈을 죽일 계획이었어. 걱정 말고 빨리 쏴.

일리치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얼떨떨한데

따냐(러시아어)

(일당에게 소리치는) 그냥 쏴버려 난 안 죽어!

얼음여우(러시아어)

(일당들에게) 길을 비켜줘! (일리치에게) 숲에 들어가기 전에 그녀를 내려놔!

숲 쪽을 터주는 일당들. 눈치를 보며 말을 움직이는 일리치

따냐

(작은 소리로) 지금이야 쏴!

따냐를 보며 머뭇거리는 일리치

얼음여우(러시아어)

(버럭) 허튼 수작부리지마!.

따냐

(일리치에게 작은 소리로) 바보야 그냥 쏘고 달려도 돼! 어차피 달리면 우릴 못 맞춰.

따냐의 말에 순간적으로 조준해서 총을 쏘는 일리치. 탕! 얼음여우가 어깨에 총을 맞고 말에서 떨어진다.

따냐가 갑자기 자진해서 말을 숲 쪽으로 달린다. 일당들의 총이 일제히 발사된다.

달리는 일리치와 따냐 옆으로 총알이 스쳐가는 소리가 들린다.

일리치

못 맞춘다며!

따냐

살려 줄 테니까 몸이나 숙여!

납작 엎드린 자세로 쏘살같이 말을 모는 따냐.

살짝 돌아보는 따냐. 멀리 얼음여우가 어깨를 잡고 일어난다.

따냐

젠장!

위험스럽게 총알이 스쳐 지나간다. 가까스로 숲속으로 들어가는 따냐의 말.

깊숙한 숲을 향해 달리는 따냐. 일당들도 재빨리 따라오지만 숲 사이에서 앞선 말을 찾기 어렵다.

따냐의 말을 잃어버린 일당들. 우왕좌왕한다.

11. # 계곡 옆 다리 위

마차를 타고 따냐를 기다리고 있던 쏘냐.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따냐의 말. 마차 옆에 와서 서는 따냐의 말.

그때 풀썩 말에서 떨어져 쓰러지는 일리치

놀라서 돌아보는 따냐. 등에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일리치.

따냐와 쏘냐가 일리치를 마차에 싣는다.

쏘냐(러시아어)

어떻게 된 거야?

따냐(러시아어)

실패야. 야수 없인 무리였어.

쏘냐(러시아어)

누구야

따냐(러시아어)

몰라! 승객인데 조선인이야. 얼음여우를 쫓어

쫓냐(러시아어)

얼음여우 죽었어?

따냐(러시아어)

아니 어깨에 맞은 것 같아.

일리치의 상처를 살펴보고 있는 따냐.

따냐(러시아어)

총알이 박혔어. 오두막으로가!

12. # 숲속 오두막

피로 젖은 일리치의 가방을 열어보는 따냐

소지품들 사이에 편지와 금괴가 있다. 놀라서 꺼내보는 따냐. 금괴 하나에 총알이 박혀있다. 피식 웃는 따냐.

그러다가 표정이 변하는 따냐. 야수 집에 떨어진 금괴처럼 매화 꽃무늬가 새겨져있다.

그때 따냐의 뒤통수에 와 닿는 총구

일리치

내려와!

따냐

(내려놓으며) 일어나면 안 돼! 총알이 깊이 박혔었어.

일리치

넌 누구야? 여긴 어디야?

따냐

(상황을 설명하듯) 난 죽어가는 당신 목숨을 살린 은인이고, 여긴 숲 한가운데... 나가는

길은 나뭇에 몰라. 그러니까 날 죽이면 당신도 여기서 죽어!

일리치

(창밖을 보며) 찾아오기도 어렵겠군 (깊은 밤이다)

따냐

(총을 가리키며) 그거 치워. 어차피 날 죽이지도 못하잖아.

일리치

날 죽일 수도 있잖아.

따냐

죽일 거면 살려 놓지도 않았어.

따냐

(가방을 보며) 이것 때문에 도망 친 거야? (총알이 박힌 금괴를 들어 보이며) 운이 좋아!

작은 커피용 주전자를 패치가 안에 넣는 따냐. 그제서야 아픈지 의자에 쓰러지듯 앉는 일리치.

따냐

(커피를 주며) 마셔 몸이 따뜻해 질 거야.

일리치

기차에서 뭘 훔친 거야?

따냐

(커피 잔을 들어 보이며) 커피.

일리치

커피나 훔치려고 기차를 습격해?

따냐

전쟁 때문에 커피가 끊어진지 오래됐어. 겨울이 되면 금괴보다 비싸질 거야. 하지만 감시는 소홀하지. 그냥 곡식이거든...

일리치

모처럼 만난 조선여자가 도적떼라니... 어이없군.

따냐

(가방에 눈길을 주며) 저걸 들고 도망치는걸 보면 당신도 떳떳하진 않은데?

일리치

두목은?

따냐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 (책망하듯) 총을 쏠 줄은 아는 거야?

일리치

(아픈지 인상을 쓰며) 분명히 말에서 떨어졌는데...

따냐

그렇게 가까이서도 못 맞추면서 어떻게 도망갈 생각이었어?

일리치

두목은 안 죽었지만 시키는 대로 쏘아. 이제 날 내보내줄 차례야.

따냐

걱정 마! 곧 날이 밝으면 나갈 거야.

그때 밖에서 마차소리가 들린다. 갑자기 긴장하면서 불을 끄고 창밖을 보는 따냐.

일리치

숲속이라면서 누구야?

따냐

(창밖을 확인하며) 쏘냐야. 우릴 데리러온 친구야.

오두막에서 멀리 마차를 세우는 쏘냐.

일리치

친구 맞아? 왜 마차를 저기 세웠지?

쏘냐의 모습에 멍청하는 따냐. 쏘냐가 걸어오는 모습이 이상하다. 긴장하고 있다. 종종걸음을 걷는 쏘냐.

따냐

젠장! (갑자기 움직이면서)

일리치의 손을 끌고 재빨리 방안으로 들어가는 따냐.

<화면전환>

<오두막 밖>

열쇠 꾸러미에서 열쇠를 찾는 척 한다. 시간을 끄는 쏘냐. 멀리 숲속에서 쏘냐를 보고 있는 얼음여우 일당들. 자물쇠를 여는 쏘냐. 갑자기 말을 타고 숲에서 튀어나오는 로스키와 얼음여우일당들. 순식간에 오두막을 포위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간다.

<오두막 안>

쏘냐를 밀쳐내고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로스키. 총을 들고 집안을 뒤져보지만 아무도 없다. 로스키 돌아와서 쏘냐의 따귀를 사정없이 때린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쏘냐

로스키(러시아어)

어디 숨겼어. 어서 말해! 니가 따냐와 째다는 거 다 알아. 오늘 까지 못 찾으면 너도 나도 얼음여우 손에 죽어.

쏘냐(러시아어)

(악을 쓰며) 난 몰라! 여기 내려줬을 뿐이야.

<마루 바닥 밑>

일리치와 따냐가 서로 껴안듯 비좁게 바닥 밑에 숨어 있다.

로스키의 발이 두 사람 머리 위를 왔다 갔다 한다. 숨을 죽이고 있는 두 사람

로스키가 쏘냐를 때리는 소리가 들린다. 쏘냐가 비명을 지를때 마다 움찔거리는 따냐.

분노를 참으며 괴로워하는 따냐. 그런 따냐를 보는 일리치. 따냐의 숨소리가 느껴진다.

로스키(러시아어)

얼음여우는 너희 가족들도 찾아 낼 거야. 나타샤는 껍질이 베껴질 거고... 그 어린애와 가족들이 무슨 죄야. 아직 얼음여우가 몰라. 빨리 따냐를 찾아내면 돼! 우리가 따냐 때문에 고통 받을 필은 없잖아.

쏘냐(러시아어)

정말 몰라. 남자가 총에 맞았어. 멀리 못 갔을 거야.

로스키(러시아어)

(일당들에게) 주변을 살살이 뒤져. 핏자국을 찾아. 그놈이 총에 맞았다.

일리치의 등에서 피가 베어 나오고 있다. 땀을 흘리는 일리치.
그때 탕! 갑자기 총소리가 난다. 파당. 두 사람 위로 쏘냐가 쓰러진다.
놀라는 따냐와 일리치. 마루 틈 사이로 쏘냐와 따냐의 눈이 마주친다.
놀라서 소리치려는 따냐. 일리치의 손이 따냐의 입을 막는다.
따냐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 그런 따냐를 보는 일리치의 안타까운 시선.
쏘냐 얼굴을 타고 흐르는 피가 따냐의 얼굴에 떨어진다. 소리 없이 흐느끼는 따냐.
따냐를 보는 쏘냐의 눈이 살짝 미소 짓더니 풀어진다.
일리치도 차마 보지 못 한다. 일리치의 가슴에 얼굴을 묻는 따냐.
일당들의 발소리가 멀어진다.

13. # 오두막 옆

오두막 옆 숲 입구에 쏘냐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두 사람.
무덤위에 흙을 덮고 있는 따냐. 땅을 파느라 힘이 들었는지 샅에 기댄 채 옆에 서있는 일리치.

따냐

걸어서 숲을 빠져 나갈 순 없어. 여기서 동쪽으로 반나절 쯤 걸어가면 계곡이 나와.
계곡을 타고 강까지 가야돼! 그게 유일한 길이야.

14. # 몽파쥬

/숲속을 앞서 걷는 일리치. 따냐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따냐가 앞서고 있고 일리치가 뒤를 따른다.
/일리치의 발길이 점점 느려진다. 계속 돌아보는 따냐. 결국 주저앉는 일리치
/일리치의 상처를 다시 붓대로 감아주는 따냐.
/다시 걷고 있는 두 사람. 따냐가 지쳤다. 일리치가 따냐의 손을 잡아준다.
/서로를 의지 한 채 아무 말 없이 걷는 두 사람.
/계곡 앞에 도착한 두 사람. 털썩 주저앉는다.
/뗏목을 타고 계곡을 따라가는 따냐와 일리치.
/강위에 떠있듯이 흘러가고 있는 뗏목. 두 사람 다 지쳐 스러져있다. 그때 멀리 화물선이 다가온다.
/갑판위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앉아있는 두 사람. 일리치의 상태가 나쁘다.
일리치의 어깨를 감싸는 따냐. 따냐의 품에 쓰러지는 일리치.

15. # 병원.

눈 을 뜨는 일리치. 큰 방에 많은 침대가 있지만 아무도 없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통증으로 일어나지 못한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짐을 들고 따냐가 들어온다.

따냐

(일리치에게 다가가며) 상처가 깊었어. 며칠은 누워 있어야 돼

일리치

여기 어디야?

따냐

정신병원.

일리치

뭐?

따냐

걱정 마 정신병원도 병원이야. 그 정도 상처는 치료할 수 있어.

일리치

아니 왜 하필 정신병원?

따냐

숨기 좋은 데야. 이 병원주인이 내게 빛이 있거든.

일리치

정말 종잡을 수가 없군. (등이 아픈지 인상을 찌뿌리며)

따냐

(일리치 가방을 침대 옆에 올려놓으며) 다 나올 때까지 여기 있어. 조용하고 좋을 거야.

가방을 보자 급하게 가방을 뒤져서 편지를 확인하는 일리치. 잘 있다. 금괴를 확인하는데

따냐

(금괴가 든 주머니를 들어 보이며)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돌려주지.

일리치가 일어나 잡으려하는데 따냐가 일리치에게 총을 겨눈다

일리치

무슨 짓이야?

따냐

금괴가 욕심나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

일리치

...

따냐

어디서 났어?

일리치

알 필요 없어.

따냐

이건 특별한 금괴야. 매화무늬는 일본 왕실이란 뜻이야.

일리치

전문가라 다르군

따냐

내 친구가 이것 때문에 죽었어. 어디서 난거야?

일리치

그 친구가 욕심이 과했네...

따냐

야수를 알고 있지?

일리치

죽은 친구가 야수야? (잠시 따냐를 보다가) 그 친구는 일본이 죽였겠지. (고개를 저으며)
난 아냐. 그건 내가 정당한 대가로 받은 거야.

따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지만 체념한 듯) 그래 이젠 누가 죽였는지 알 필요도 없어!
(주머니를 일리치 앞에 던지며) 한 덩이로 병원비 계산했고 남은 건 내가 좀 빌렸어.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그 정도는 가질 자격 있지? 다시 만나면 그때 갚을 게!

일리치

뭐야! 어딜 가는 거야?

따냐

얼음여우 잡으러! (자신의 짐을 챙기며)

일리치

혼자선 못해

따냐

같이 가려고? (웃으며) 그 몸으론 방해야. 총도 쓸 줄 모르잖아.

일리치

(짐을 챙기는 따냐를 보며) 방금 탈출해놓고 다시 불속으로 뛰어들어?

따냐

(잠시 멈칫 일리치를 돌아보다가) 당신 눈빛이 좋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눈이야. 몸
조심해!

나가다가 돌아서는 따냐

따냐

아참! 그 총 맞은 금괴는 팔지 마! 당신 행운이야.

나가는 따냐의 뒷모습을 보던 일리치 총알 박힌 금괴를 들어 본다.

16. #선술집

시끄러운 선술집. 로스키가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

신사 차림의 변장한 따나가 술집에 들어온다. 구석에 조용히 가서 앉는다.

금속 그릇들에 반사되어 보이는 로스키의 모습. 아가씨들이 로스키를 유혹한다.

로스키가 취해서 여자들을 끼고 술집과 연결된 방으로 들어간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따나. 로스키가 들어간 방으로 들어가는 따나.

로스키는 침대에 양팔을 벌린 채 묶여있다. 로스키와 같이 들어온 여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따나.

따나를 보고 놀라는 로스키.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듯 팔을 움직여 보지만 완전히 묶여져있다.

따나

(차가운 눈빛으로) 은여우 친구를 죽였으면 조심했어야지.

로스키

(표정이 불안해지며 변명하듯) 얼음여우가 죽이라고했어. 잘 알잖아. 난 얼음여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따나

유일한 친구였어.

로스키

(비굴하게 웃음을 날리며) 따나~ 우리 모두 친구잖아. 얼음여우가 얼마나 찾았는데....

따나

알고 있어. 나타샤만 데리고 떠날 거야. 나타샤 어딴어.

로스키

술집에... 얼음여우 방에 갇혀있어. 니가 나타날때까지 숨겨야 된다고 했어.

따나

얼음여우는?

로스키

병원에... 총에 맞아서 왼팔을 못 쓰게 됐어.

품에서 총을 꺼내는 따나

로스키

이러지마 따나! 다 얘기했잖아.

한손에는 베개를 잡는 따나.

따나

죽은 쏘나의 선물이야.

베개로 로스키의 얼굴을 가리고 그 위에 총을 쏘버리는 따나.

베개 속 깃털이 마치 뽕튀기 터지듯 사방에 흩날린다.

17. # 얼음여우 술집

술집 문이 닫혀있다. 멀리서 확인하는 따냐.

건물 옥상에서 비상 사다리를 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따냐

아무도 없는 건물. 조용하다. 계단을 타고 얼음여우 술집으로 통하는 뒷문으로 들어간다.

보초를 서고 있는 부하가 졸고 있다. 부하가 앉아있는 뒤로 조용히 숙여서 들어가는 따냐.

철문을 열고 얼음여우 방으로 들어가는 따냐. 어두운 방안에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묶여있는 나타샤.

따냐를 발견한 나타샤 뭔가 소리치며 고개를 가로 젓는다. 나타샤를 보고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 따냐

얼음여우의 손이 사정없이 날아와 따냐를 쓰러뜨린다. 바닥에 나뒹구는 따냐

얼음여우

은여우 답지 않아. 조심성이 없어 진거야 나타샤 때문에 이성을 잃은 거야?

따냐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나타샤와 떠날 거야 날 보내줘!

얼음여우

(웃으며) 난 너무 많은걸 잃었는데 날 떠나겠다고?

따냐

난 할 만큼 했어. 돈도 많이 가졌잖아. 내 몫을 챙겨 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조용히 보내줘.

그때 얼음여우 부하들이 들어온다. 마치 준비했다는 듯 총과 흉기들을 들고 있다.

얼음여우

그렇게 널 아꼈는데... 왜 날 죽이려했지?

따냐

진심을 알고 싶어?

얼음여우

다 털어봐!

따냐

니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얼음여우

내가?

따냐

아버진 조선 역관이었어. 러시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도적떼들의 습격을 받고

돌아가셨어. 설마 잊진 않았겠지?

얼음여우

(누군지 알겠다는듯) 그럼 날 죽이려고 은여우가 된 거야?

따냐

복수는 포기할거야 그러니 나타샤와 날 보내줘.

화가 나서 앞에 있는 골동품 화병을 던져버리는 얼음여우

얼음여우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내 여자가 복수나 꿈 꾸 거야! (분노를 참지 못하고 따냐를 향해)
날 더 중요하게 만들어주지.

부하의 총을 빼앗아 나타샤를 향해 가는 얼음여우

따냐

안 돼! 얼음여우. 제발.

따냐, 얼음여우에게 달려가는데 부하가 휘두르는 몽둥이에 맞고 다시 쓰러지는 따냐.

따냐의 애원을 외면하고 그대로 탕! 나타샤를 쏘버리는 얼음여우

따냐

(절규하는) 안 돼!

부하들이 달려들어 따냐를 잡는다.

얼음여우

도끼를 가져와!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은여우의 발목을 잘라!!

부하가 도끼를 들고 온다. 따냐를 탁자위에 눕히는 부하들. 필사적으로 반항하지만 역부족인 따냐.

탕! 탕! 탕! 그때 밖에서 연속으로 총소리가 들린다.

총소리에 놀라 다들 문 쪽을 돌아보는데 철문이 부서지듯 열린다.

연기가 가시지도 않은 총을 들고 일리치가 서 있다.

따냐와 눈이 마주치는 일리치. 놀라는 따냐.

총을 던지고 칼을 뽑는 일리치.

부하들이 일제히 총을 들어 일리치를 향해 쏜다.

순식간에 총알을 피하면서 부하들을 향해 달려든다.

놀라운 속도로 부하들의 급소를 끊으며 제압해가는 일리치.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모습을 보며 놀라는 따냐.

일리치를 향해 총을 쏘는 얼음여우.

총알이 일리치의 몸을 스쳐간다. 순간 쓰러지는 일리치. 놀라는 따냐.

달려드는 부하들. 하지만 일리치의 칼이 더 빠르다.

모두 쓰러뜨리고 어느덧 얼음여우의 눈앞에 왔다.

일리치의 옆구리에서 피가 흐른다.

잠시 눈빛이 부딪히는 일리치와 얼음여우.

순간 일리치의 발이 얼음여우의 옆구리를 강타한다. 꼬꾸라지듯 쓰러지는 얼음여우.
얼음여우의 총을 빼앗아 따냐에게 던지는 일리치. 총을 받는 따냐.

일리치

복수는 포기하는 게 아냐!

얼음여우가 따냐를 보는데 따냐의 총구가 얼음여우의 얼굴 앞에 와있다.

따냐(러시아어)

웃어! 날 처음 봤을 때처럼.

이미 포기한 듯 비열하게 웃는 얼음여우. 탕! 따냐 앞에 쓰러지는 얼음여우.
서있던 일리치도 쓰러진다.

18. # 병원.

눈을 뜨는 일리치. 따냐 얼굴이 들어온다.

따냐

살아 돌아 온 걸 축하해.

따냐가 커피 잔을 내민다. 커피를 따르는 따냐

따냐

내가 잘 만들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 하지만 러시아에선 최고일거야.

커피를 들어 마시는 일리치. 맛이 놀랍다. 옆구리가 당기는지 움찔한다.

따냐

고마워... 울 줄 몰랐어. 사실... 속으로 조금 기대는 했지만 그 정도 실력인지 몰랐어.

일리치

방해라면서...

따냐

전문가란 거 알고 있었어. 당신이 야수를 죽인 것도...

일리치

(약간 당황하며)...

따냐

야수가 군대를 동원해서 나 대신 얼음여우를 죽여주기로 했었는데... 당신이 계획을
날려버렸어. 아마 그때 알았다면 당신을 죽였을 거야.

일리치

(담담한척) 이제 어디로 갈 거야?

따냐

글쎄... (슬프게) 이제 복수할일도 지켜야 될 사람도 없어졌네....

일리치

이럴 땐...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

따냐

(무슨 소리야? 일리치를 보면)...

일리치

사실... 다시 못 볼 것 같아서 간 거야. (조용히 얼버무리듯) 놓치고 싶지 않아서...

따냐

(기분 좋게) 날?

일리치

(당황하며) 아니...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성공해도.... 도망쳐야 될 텐데... (우왕좌왕)
그럼 다시 만나기도 어렵고... 금괴를 받을 길도 없고....(점점 얼굴이 굳는데)...

따냐 그 모습을 보다가 웃으며 일리치에게 키스한다.
놀라는 일리치 좋은데 상처가 아프다. 참고 있는 일리치

따냐

(키스하고 떨어지며) 날 데려가.

그 말을 듣고 와락! 따냐를 끌어당겨 키스하는 일리치.
아! 비명을 지르는 일리치. 상처가 아프다. 웃는 따냐.
다시 키스하는 두 사람 달콤하다. 점점 달아오른다.

19. # 몽따쥬

/ 마차를 달리는 두 사람 - 경쾌한 음악과 함께 거대한 뻘째르스부르그로 들어간다.
/ 비어있는 넓은 저택으로 뛰어 들어오는 따냐와 일리치. 저택을 뛰어다니며 좋아하는 따냐와 일리치.
/ 아름다운 뻘째르스부르그 도심의 카페거리를 걷는 일리치와 따냐.
/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내기 체스를 두는 따냐. 따냐가 마지막 말을 옮기자 한쪽 사람들이 환호한다. 돈을 받아 행기는 일리치. 따냐에게 윙크를 날린다. 행복하게 웃는 따냐
/ 커피기구들을 파는 가게를 둘러보는 두 사람. 신기한 기구들을 보면 웃는 따냐. 일리치, 따냐에게 웃어주는 데 가게 밖 창문에서 뭔가를 본다. 잠시 표정이 굳어지는데 일리치를 부르는 따냐. 다시 웃는 일리치.

20. # 따냐 저택 주방

자욱한 연기가 살짝 걷히면 커피콩이 뜨거운 팬 위에서 볶아지고 있다.

따나의 목소리

연하게 볶으면 향은 살아나지만 맛이 복잡해지고, 진하게 볶으면 쓴맛이 깊어져.

커피 분쇄기 속에서 갈려져 나오는 커피가루들. 웅 거름 채 위에 쏟아지는 커피가루들.
천천히 조금씩 정교하게 뜨거운 물을 방울방울 흘리는 따나.

따나

커피는 만드는 게 아니라 내리는 거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내리는 거지.

컵케이크처럼 부풀어 오르는 커피와 거품.
커피의 엑기스가 방울방울 떨어진다. 집중하는 따나.
그런 모습을 사랑스럽고 놀랍다는 듯 감탄하며 보고 있는 일리치

따나

천천히 퍼지도록 인내하며 적신다!

어느 정도 커피가 모아져 커피가루를 버리는 따나

일리치

(놀라서) 왜 버려 아직 다 우려내지도 않았는데...

따나

쓸모없는 맛들은 아끼지 말고 버린다! 미묘한 차이에도 맛과 향이 달라져!

따나가 건네는 커피를 마시는 일리치. 놀라운 맛이다.

일리치

왜 그렇게 커피만 마시는 거지? 차가 더 흔한데...

따나

(잠시 생각하듯)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울고 있는 나에게 아버지가 커피를
끓여줬어.

<화면전환> - 회상

서재. 나란히 소복을 입고 마주앉은 아버지와 어린 따나.
다도 그릇에 따라진 검은 커피. 따나 눈엔 아직도 눈물이 맺혀있다.

따나 아버지

러시아에서 가져 온 차다. 한자어로 가비라고 한단다.

단이 천천히 차를 마시듯 커피 잔을 들어 마신다. 쓴맛이 느껴지는 듯 잠시 일그러지는 표정
잔 위에 눈물이 떨어진다.

따냐 아버지

다음엔 러시아에 데리고 가마!

눈이 내리는 마당너머에 그림처럼 마주앉아 있는 두 사람.
<화면 전환>

따냐를 보고 있는 일리치

따냐

그날, 처음 마셨던 커피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커피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만드는 법을
배웠어. 마법에 걸린 것처럼... (코믹한 마녀를 연기하듯 러시아어로) 커피가! 날!
끌어당겼어!

일리치

우린 둘 다 아버지한테 커피를 배웠네!...

따냐

(커피를 마시다가) 아버지?

일리치

노비였던 아버지가 날 업고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넜어.... 벌목현장을 떠돌면서 도망치며
살았지.... 아버지 항상 커피와 술에 취해있었고.... 내게도 술을 탄 커피를 먹였어.... 내가
열 살 되던 해에 나무에 깔려서 돌아가셨어. 그 후로 커피는 안마셨어.

따냐

(슬프게) 미안해 커피밖에 못 만들어...

일리치

이제 다 잊어 버렸어. (따냐의 눈을 보며 장난스럽게) 내게 커피는 지금부터야.
향기롭고... 쓰고... 시고... 달고... 세상의 모든 맛!

따냐를 안아 올리는 일리치. 행복한 따냐. 달콤한 키스.
아름다운 두 사람의 정사로 이어진다.
노을에 붉게 물드는 행복한 저녁

21. # 침실

확! 커튼이 젖혀지고 햇살이 쏟아진다. 돌아보는 일리치. 침대가 비어있다. 놀라는 일리치.
옷장 속에 가방을 확인하는 일리치. 덩그러니 금괴하나만 있고 모두 비어있다.
베개위에 편지를 발견하는 일리치. 따냐가 쓴 편지다.

따냐 목소리

미안해! 내 솔직한 마음이야.

22. # 역 플랫폼

열차에 올라타는 따냐.

따냐 목소리

이제야 자유로워 졌는데 당신에게 매여 있고 싶지 않아. 난 원래 그런 여자야.

열차 복도를 따라 객실을 찾아가는 따냐.

따냐목소리

이해하긴 어렵겠지만 용서해줘.

짐을 올리고 문을 잠근다. 금괴주머니를 의자 밑에 숨기는 따냐.

따냐목소리

혹시 다시 만난다면 그건 운명이겠지... 그땐 당신을 위해 살아줄게... 당신 좋은 사람이야.

안도하는 숨을 쉬는 따냐. 창밖을 보는데 노크소리.

놀라는 따냐. 문을 열까 망설이는데...

문 밑으로 편지가 들어온다. 조심스럽게 펴보는 따냐

일리치 목소리

너를 만난 거 우연이 아니야. 멀리서 오래 동안 지켜봤어. 나도 널 속였으니까 미안해 하지만. 이젠 내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어. 잘 가.

편지를 읽고 놀라는 따냐. 문을 열고 나가는데 복도엔 아무도 없다.

돌아와 자리에 앉다가 깜짝 놀라는 따냐.

기차 밖 유리창 앞에 와서 서는 일리치. 얼음이 되어버린 따냐.

일리치 따냐를 보고 웃으며 살짝 모자를 들어 올리며 인사하는 일리치. 마치 작별인사 같다.

따냐도 손을 들어주며 미안한 미소를 짓는다.

그때 갑자기 멀리 돌아보는 일리치. 뭔가를 발견한 듯 놀라는 일리치 따냐를 보더니 반대편으로 달린다.

놀라서 일어나는 따냐 창가로 다가가서 보면 누군가에게 쫓기 듯 사람들 속으로 뛰어가는 일리치. 검은 옷의 사내들이 일리치의 뒤를 쫓는다. 그때 객실 방문을 열려는 소리가 난다. 러시아 경관 둘이 따냐 앞에 선다.

경관

부인 같이 가실 까요!

놀라는 따냐.

23. # 따냐의 저택

경찰마차가 따냐의 집으로 다시 들어간다.

현관에 내리는 따냐. 경관들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간다.

따냐를 서재 안으로 들여보내는 경관들. 동양남자 한명이 따냐를 기다리고 있다.

다케다

(따냐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일본투의 조선말로) 반갑습니다. 따냐! 전 다케다입니다.

따냐

주인 허락도 없이 뭘 하고 계신건가요

다케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잠시 여행은 미루시고 절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따냐

왜 제가 당신을 도와야하죠?

다케다

이반 일리치의 연인이니까요.

따냐

도대체 무슨 일이죠?

다케다

말씀드리자면 복잡한데. 그대로 할까요? 단순하게 할까요?

따냐

(화를 참으며) 간단히 하세요

다케다

일리치는 러시아군의 특수 정보장교입니다.

따냐

(약간 놀라며 다케다를 보는데)...

다케다

우린 일리치를 보호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도움이 필요 합니다.

따냐

보호? (털썩 의자에 앉으며 모르겠다는 듯) 정말 복잡하네요.

다케다

야수장교를 알고 있죠?

따냐

(점점 더 집중하며)...

다케다

일리치와 야수는 러시아군이었지만 은밀히 일본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따냐

첩자?

다케다

러시아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야수가 우릴 속이고... 일본요원들의 명단을 러시아에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일리치가 그걸 알고 미리 막았는데... 러시아 정보군이 그 명단을 일리치가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쫓고 있습니다

<플래시> 일리치 금괴와 같이 있던 편지. 그 위에 일리치의 목소리가 스쳐간다. “내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어.”

따냐

(갑자기 일리치의 말이 떠오르는 듯) 그런 얘기라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전 다시 여행을 떠나겠어요. (나가려고하는데)

다케다

일리치가 위험합니다. 당신책임도 있어요.

따냐

(멈칫)...

다케다

일리치는 한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일도 예정대로 잘 처리 됐으면 의심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리치가 사라졌어요. 연락이 끊어지면서 정보국이 일리치를 의심했는데... 공교롭게도... 일리치가 야수와 관련 있던 얼음여우 조직을 박살 낸 겁니다.

따냐

(머리속이 복잡해진다)....

24. # 상황 몽따쥬 - 회상

/카페에서 얼음여우와 일리치가 만나는 장면. 따냐의 반대편에 일리치가 앉아서 야수를 보고 있다.

다케다 목소리

일리치도 얼음여우가 야수와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스스로 상처를 칭칭 동여매는 일리치. 그 위에 옷을 입고 보드카를 들이킨다. 상처가 아프다.

다케다 목소리

얼음여우를 죽이면 정보국이 의심할 거란 걸 일리치도 알고 있었죠.

/어두운 창고 구석. 익숙한 숨씨로 상자를 열고 총과 칼을 몸속에 숨긴다.

/따냐가 얼음여우소굴로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보는 일리치

다케다 목소리

그런데 당신 때문에 무모하게 일을 벌인 겁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일리치. 순식간에 보초를 서고 있던 일당들을 총으로 죽이며 들어가는 일리치

25. # 다시 저택 거실

따냐가 마치 일리치의 모습을 보듯 생각에 잠겨있다.

다케다

정보군이 그 사건을 쫓아 여기까지 왔어요. 결국 오늘 일리치가 역에서 잡혔어요. 당신까지 노출될까봐 이리로 데려 온 겁니다... 따냐! 우리가 그를 구해야 됩니다.

따냐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서면서) 당신 말을 어떻게 믿죠? 일리치는 내게 한마디도 안했어요.

다케다

일리치가 왜 애길 안했는지 그건 우리도 모릅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겠죠. 아무것도 모른다면 오히려 안전할 테니까.

따냐

(답답해진다)...

다케다

우린 당신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냐

(답답한 표정으로 다케다를 보며) 내가 뭘 할 수 있죠?

다케다를 보는 따냐의 눈빛이 흔들린다.

26. # 정보국의 르윈스키 방안 - 회상

일리치가 르윈스키에게 경례하고 앞에 선다.

다케다의 목소리

최근 러시아 정보국은 일리치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조선에 파견할 특수 요원을 찾는 일입니다.

르윈스키대령이 일리치 앞에 앉아있다. 서류에 사인을 하며

르윈스키

조선왕이 궁을 버리고 우리공사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공사관에는 조선말과 러시아말을 잘하는 요원이 없어. 왕의 곁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요원을 만들어.

서류에 사인을 하고 일리치에게 전달한다. 르윈스키에게 경례를 하는 일리치

27. # 상황 몽따쥬

/따냐가 마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 창밖을 보는 따냐의 얼굴위로 다케다의 목소리가 흐른다.

다케다 목소리

당신은 일리치와 같은 조선출신입니다. 일리치가 당신을 정보원으로 포섭하기 위해 모든 사건을 벌인 거라면 정보군은 일리치를 풀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국 로비. 거대한 로비를 군인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가는 따냐

다케다의 목소리

정보국의 르윈스키 대령을 찾아가세요.

28. # 르윈스키 방

르윈스키가 따냐 앞에 앉아있다

르윈스키

일리치가 왜 얼음여우를 죽인 겁니까?

따냐

내가 조선에 가는 대신 얼음여우를 죽여 달라고 부탁 했어요.

르윈스키

당신은 조선출신입니다. 그런데 조선을 속이고 러시아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까?

따냐

난 일리치를 위해 일합니다. 그가 나를 구했으니까.

르윈스키

그를 사랑합니까?

따냐

일리치를 만나고 싶습니다.

따나의 눈빛을 보던 르윈스키가 일어나 나간다.

29. # 정보국 복도

어둡고 긴 복도를 르윈스키를 따라가는 따나. 계단을 내려가서 어느 방 앞에서 문을 열어주는 르윈스키.

30. # 방 안

일리치가 문을 등지고 탁자 앞에 앉아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돌아본다.

초췌한 얼굴로 따나를 발견하는 일리치.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난다. 따나 그 모습에 울컥. 일리치에게 안긴다.

일리치

(따나를 안지만 불길하다) 어떻게 여길 온 거야? 왜 안 떠났어?

따나

다시 만나면 운명이라고 했잖아.

일리치

혼자가 아니지? (더 불길해지며 조용히) 누굴 만났어?

따나

다케다.

일리치

(짧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내말 잘 들어 따나. 어떤 얘기도 듣지 마! 그냥 모른척하고
어서 떠나. 찾을 수 없는 데로 가.

따나

내가 조선에 간다고 했어

일리치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따나를 다잡으며) 안돼 따나! 위험한 일이야. 더 이상 엮이면
안돼! 멍청한 러시아 놈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따나

러시아도 떠돌았는데 조선이야. 문제없어. 지금 널 구해야 돼.

일리치

따나! 내 걱정은 하지 마!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무런 증거도 못 찾을 거야. 지금 안
떠나면 영원히 못가.

따나

(답답하고 안타깝게 보면서) 너라면 갈수 있어?... 날 여기 두고 갈 거야?

일리치

(안타깝다) 따나!

따나

니가 날 구했듯이 지금은 널 구할 거야! 나와서 날 지켜줘.

일리치에게 키스하는 따냐.

31. # 정보국 앞

일리치와 따냐가 나란히 마차에 올라탄다. 마차가 떠난다. 르윈스키가 마차를 보고 있다.

32. # 숲속

어디론가 급하게 말을 달리는 일리치. 일리치를 따라가면 숲을 지나서 넓은 공간이 나온다.

말을 탄 채 기다리고 있는 다케다. 다케다 앞에 멈춰서는 일리치. 말을 탄 채 마주선 일리치와 다케다

일리치

다시는 따냐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케다

(비웃듯) 상황을 만든 건 너야 일리치.

일리치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

다케다

(야비하게) 좋아 약속하지! 하지만 명심해! 따냐는 너를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 가는 거다.

일리치

(단호히) 앞으로 미우라상을 직접 만나겠다.

다케다

원하는 대로... 난 조선으로 돌아간다. 행운을 빌어!

먼저 떠나는 다케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리치.

33. # 따냐의 저택

식당의 큰 테이블에 마주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따냐와 일리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식사를 하지만 점 점 더 불편해지는 일리치.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는 일리치.

일리치

따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다. 설득하듯) 이건 러시아만 연관된 일이 아니야. 일본의 첩자가 되는 거야. 러시아와 조선을 다 속여야 돼!

따냐

(식사를 하며) 어차피 모두를 속이면서 살았어 달라질건 없어. 걱정 마!

일리치

상대는 조선의 왕이야. 죽을 수도 있어. 다른 방법을 찾자. 지금도 안 늦었어.

포크를 놓고 일어나 일리치에게 다가가는 따냐

따냐

걱정은 그만해 난 죽는 거 두려운 적 없었어.

일리치 무릎위에 기대어 앉는 따냐

따냐

널 구했고 이렇게 내 앞에 있잖아. (일리치를 안으며) 난 지금 이시간이 아까울 뿐이야.

일리치를 안고 있는 따냐. 그 위로 다케다의 목소리가 흐른다.

다케다 목소리

이제 일리치 운명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다시 도망친다면 일리치는 우리 손에 죽을 겁니다.

34. # 침실

침대위에 일리치 품에 안겨있는 따냐.

따냐

조선에 관한 꿈을 꿀 때마다 나쁜 일이 생겼어. 내게 조선은 그런 곳이야. 내 불행이 시작된 곳.

일리치

(따냐의 머리를 쓸어주며) 그곳에 다시 가야 돼. 두렵지 않아?

따냐

얼음여우가 아버질 죽였지만... 아버진 왕실의 물건을 잃어버려서 역적이 됐어. 가족들이 잡혀가고 나 혼자 탈출했어... 당신 때문에 조선에 가는 거 아니야.

일리치

(따냐를 보며)...

따냐

(일리치를 올려다보며) 복수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내 불행을 조선에서 끝내고 싶어. 더 이상 설득하지 마. 날 지켜주면 돼

일리치

약속할게!

- 페이드 아웃

35. # 네브스키 거리의 큰 카페

- 페이드 인

지배인처럼 보이는 신사와 웨이터 장처럼 보이는 사람.

몇 명의 웨이터와 주방식구들이 죽 늘어서 모두 한곳을 보고 있다. 반대편에서 떠나가 커피를 만들고 있다.

각자들 앞에 놓인 잔에 커피를 따르는 떠나. 웃으며 커피를 권한다.

모두들 긴장하며 맛을 본다. 주방식구들의 표정이 변한다. 모두 웨이터와 지배인에게 시선이 쏠린다.

놀라운 맛이다. 확 밝아지는 지배인의 표정. 떠나에게 손을 내미는 지배인. 떠나 악수한다.

그 화면위로 일리치의 목소리가 흐른다.

일리치의 목소리

네브스키 거리의 카페들은 정치인들과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집합 장소야. 거기서부터 출발이야.

사람들이 떠나에게 물려든다. 이것저것 물어보고 맛에 감탄하고 모두들 순식간에 친해진다.

<화면 전환>

커피를 만들고 있는 떠나의 모습. 여종업원 차림으로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하고 있다.

테이블을 오가는 떠나의 시선에 중요한 사람들이 들어온다.

일리치의 목소리가 흐르면서 그들을 설명 한다. 대여섯 명의 젊은 정치인들로 보이는 신사들이 앉아있다

일리치 목소리

콧수염 남자는 러시아 외무상의 오른팔이야. 그 옆에 대머리는 황제와의 약속을 조종하는 비서관이야.

얼굴을 기억하면서 미소를 던지는 떠나. 모두 떠나에게 미소로 답한다. 그때 들어와 자리에 앉는 러시아 군인.

일리치 목소리

그는 극동지역 사령관의 부하야. 저들이 조선을 포함한 아시아의 정책을 결정하는 주역들이야.

그들이 떠나를 보며 수근 거린다.

대머리 남자

(떠나의 뒷모습을 보며) 네브스키에서 유명한 여자야. 커피 맛도 놀랍고 아무리 주문이 많아도 다 기억한대

사령관 부하

그럴 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 주문을 어떻게...

콧수염

내기 어때? 자리를 바꾸는 거야. 난 못 맞춘다 에 걸어

각자들 맞춘다. 못 맞춘다. 시끄럽게 떠들면서 웃는다.

따냐를 부르는 콧수염.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가는 따냐.

주문을 받고 있는 따냐의 모습. 모두들 메뉴판을 보면서 이것저것 마구 시킨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만 맞추는 따냐. 아무것도 적지 않는다. 따냐가 인사를 하고 돌아간다.

따냐가 주방으로 간 사이 자리를 바꿔 앉는다.

<화면전환>

양손가득 접시를 들고 나오는 따냐. 테이블 앞에 서는데. 모두들 빙그레 웃으며 따냐를 보고 있다.

장난치는 그들에게 알았다는 듯 따냐도 여유 있게 미소 지으며, 접시를 내려놓는다.

모두들 자기 앞 접시를 확인하면서 놀라는 사람들.

내기에 이긴 사람이 휘파람을 불며 따냐에게 박수친다. 모두들 즐겁다.

36. # 러시아 외무공관

러시아 외무대신과 일본특사가 마주 앉았다.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외무대신 뒤에 서있는 일리치. 양측의 표정이 진지하다.

미우라(일본어)

러시아는 만주를, 일본은 조선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38도선을 경계로 조선을 분할 점령합시다. 두 나라 모두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대신(러시아어)

조선이 우리 손에 있는데 왜 우리가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야 하지?

미우라(일본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듯이) 알겠습니다. 우린 조선왕의 선택을 인정하겠소. 하지만 러시아군이 조선에 주둔 하는 것은 일본에겐 위협입니다. 서로에게 오해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러시아 외무대신 (러시아어)

당신들의 제안은 무엇이오

미우라(일본어)

앞으로 조선에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일본과 러시아는 더 이상의 군사를 파견하지 않기로 합시다.

러시아 외무대신(러시아어)

(잠시생각하며 일본특사를 보더니) 좋소.

미우라가 러시아 외무대신 뒤에서 있는 일리치를 본다. 알아차리지 못하게 눈인사를 하는 일리치.

37. # 마차안

머디론가 가고 있는 마차 안. 미우라와 일리치가 마주앉아있다.

미우라

널 러시아별판에서 처음 봤을때 이렇게 잘 자라줄 거라고 상상 못했다

일리치

미우라상이 아니었다면 그때 얼음시체가 됐을 겁니다.

미우라

외무상 뒤에 서있는 모습이 정말 러시아군이 다 됐다 했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일리치

아직 러시아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미우라

니가 어디 있든 넌 우리 가족이다. 하지만 이번 일만 정리되면 일본으로 돌아 오거라.
니가 그럼구나.

일리치

네 미우라상.

<화면전환>

카페 앞에 일리치가 내리자 마차가 떠난다. 카페로 들어가는 일리치

38. # 카페

멀리 따냐의 모습이 보인다. 따냐와 눈이 마주치는 일리치.

구석진 자리에 가서 조용히 신문을 펴 드는 일리치. 따냐가 이미 유명해졌고 모두들 따냐를 찾는다.

다양한 사람들이 카페 안을 채우고 있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따냐. 화면위로 일리치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일리치 목소리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

그때 카페 안으로 갓을 쓴 사신단과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온다.

일리치 목소리

조선 왕도 러시아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사신단을 보냈어.

민영환을 주의 깊게 보는 따냐.

일리치 목소리

민영환. 왕의 측근이자 사신단을 이끄는 인물이야. 벌써 몇 개월째 황제를 만나서 군대파견을 조르고 있어.

사신단과 러시아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커피를 가져가는 따냐.

일리치 목소리

자연스럽게 그에게 접근해서 일본과 러시아의 조약내용을 알려줘!

민영환 앞에 커피를 내려놓으면서.

따냐

(조선말로 조용히)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군대를 파견하지 않기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민영환

(갑작스러운 말에 돌아보며) 조선인인가?

따냐

네. 저들이 나누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도움이라도 될까해서... 무례를 용서하세요.

러시아인들이 따냐와 민영환의 대화에 신경 쓴다. 사신단도 따냐에게 시선이 쏠린다.

민영환

러시아말을 잘하는가?

따냐

오래전에 러시아로 왔습니다. 여기서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민영환의 옆에서 통역을 하게 되는 따냐.

러시아인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표정이 떨떠름한 러시아인들.

카페 구석에서 보고 있는 일리치.

<화면전환>

사신단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을 돕는 따냐의 모습들.

회의에서, 파티에서, 식당에서, 학교와 공장을 시찰하는 곳에서...

민영환이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고 양복을 입는 걸 봐주고 있는 따냐. 마치 모든 걸 지휘하고 있는 듯 하다.

따냐와 민영환의 모습들이 겹쳐진다. 그림자처럼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일리치.

그런 일리치와 눈이 마주치는 따냐.

일리치 목소리

러시아가 군사대신 교관들을 파견하기로 했어. 사신단이 곧 돌아 갈 거야.

39. # 카페 안

민영환과 마주앉은 따냐

민영환

따냐가 아니었다면 이런 성과도 없었을 거요.

따냐

돌아가시는 길이 빈곤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민영환

같이 조선으로 갑시다. 유능한 통역관이 필요하오.

따냐

어르신을 돕는 것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민영환

이곳은 언제고 다시 올수 있소. 하지만 그대가 할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요. 따냐가 아니었다면 러시아의 속셈을 알 수 없었을 거요.

따냐

죄송합니다. (망설이다가 슬픈 목소리로) 어머니의 산소를 버려두고도 오래도록 돌아가지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

민영환

무슨 사연인가? 어떤 이유도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보다 중요하진 않네.

따냐

전 역관 집안의 여식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러시아 국경에서 전하의 금괴를 빼돌렸다는 역적 누명을 쓰고 실종되었습니다. 아직 아버님의 결백을 밝히지 못했으니 저는 조선의 죄인입니다. 어찌 죄인으로 나라 일을 돕겠습니까? 돌아가시면 저와의 기억은 잊어 주시옵소서.

민영환

죄인의 도움을 받았으니 나또한 죄인이 되었네. 우리 서로의 죄를 무덤까지 묻어두기로 하지. 남은 시간을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 살아보세. 조선의 큰 힘이 될 거네.

따냐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눈물을 보는 민영환.

따냐의 등 뒤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일리치. 담배를 꺼내 문다.

일리치의 등 뒤에서 일어서 나가는 민영환과 따냐.

40. # 르윈스키 방

르윈스키와 일리치가 마주앉아있다.

르윈스키

따냐는 공사관에 가는 즉시 공사 베베르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이다. 너 공식적인 신분을 버리고 조선으로 간다. 정보국과의 연결을 담당하라.

일리치

따냐의 임무는 언제까지입니까?

르윈스키

왕이 공사관에 머무는 동안까지다.

일리치

임무가 끝나면 안전은 누가 보장 합니까

르윈스키

조선에서 돌아오는 길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정보국으로 복귀하면 우리가 신분을 보장 한다.

41. # 페제르스부르그 근교의 강변 공원.

일리치는 피크닉 가방을 들고 따냐는 양산을 들고 강변을 걷고 있다. 그림 속의 연인처럼 아름답다.

<화면전환>

일리치가 따냐의 무릎을 베고 풀밭에 누워 있다.

따냐

(일리치의 머리를 만지며) 떠나기 전에 꼭 와보고 싶었어.

일리치

날 구한 거 후회 안 해?

따냐

아니. 날 진심으로 구해준 것도... 누군가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든 것도... 당신이 처음이야.

일리치

따냐가 위험해질까봐 두려워.

따냐

진짜 위험한건 배신이야. 날 속이지 마!

일리치

약속할게.

따냐

사랑한단 말 듣고 싶어

일리치

사랑해 따냐.

키스하는 두 사람. 노을 속에 두 사람의 풍경이 아름답다.

멀리 풍경 속에서 장난치는 두 사람. 행복한 시간위에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진다.

따냐 목소리

언제 다시 돌아 올 수 있을까?

일리치 목소리

왕이 궁으로 돌아가면 끝이야. 다시 러시아로 올 거야?

따냐 목소리

아니... 뉴욕에 가보고 싶어. 아주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에서 살 거야.

일리치 목소리

그래 뉴욕이 좋겠어.

- 길게 페이드 아웃

42. # 상황 몽파쥬

- 페이드 인

/숲으로 뒤 덮힌 끝도 없는 벌판을 달리는 기차. 피곤에 지쳐 쓰러진 민영환과 사신단 사람들
따냐는 창밖을 보며 러시아어로 편지를 쓰고 있는 따냐.

/ 향구. 사신단을 향해 인사하는 러시아 교관들. 교관들과 사신단의 대화를 통역해주는 따냐.
멀리 언뜻 사람들 사이에 섞여있는 일리치의 모습이 보인다.

/ 한양. 한양으로 들어오는 사신단 마차들과 교관들의 행렬. 마차 밖으로 조선의 풍경을 유심히 보는 따냐.

따냐 목소리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굶주리고 더럽고... 세상의 변화에는 아무 관심 없는
양반들의 나라.

43. # 손탁 호텔

민영환을 따라 호텔로 들어가는 따냐. 손탁 호텔에는 외국인 선교사와 중국인, 일본인들이 있다.
홀에서 민영환이 베베르, 손탁에게 따냐를 소개하고 있다. 김홍록도 민영환 뒤에 서있다.
김홍록이 따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바라보고 있다.

민영환

러시아공사 베베르,... 이 호텔의 주인인 손탁 여사.

따냐(러시아어)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따냐입니다.

베베르(러시아어)

러시아어가 유창하군요. (김홍륙과 민영환보며) 공사관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홍륙(러시아어)

겨우 인사말 정도에 감탄하시니, 제가 섭섭해집니다.

김홍륙이 따냐를 쏘아보는 듯 하자, 따냐 차갑게 미소로 답한다.

손탁(영어)

(민영환에게) 따냐의 커피 솜씨가 일품이라구요?

민영환

(웃으며 김홍륙에게) 네브스키 거리에선 따냐의 커피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마땅하게 러시아말로 통역하는 김홍륙. 따냐를 관찰 하듯 바라보는 손탁.

44. # 호텔 커피실

커피 콩 자루들이 쌓여있다. 조금씩 커피의 향을 맡아보는 따냐.

옆에는 손탁이 열심히 따라다니며 따냐의 행동을 관심 있게 본다.

따냐(러시아어)

볶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생콩을 구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마다 볶아서 쓰면 훨씬 신선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쌀쌀맞은 표정으로 돌아서는 손탁. 따냐 도도한 눈빛으로 손탁의 뒷모습을 지켜본다.

45. # 공사관

공사관 입구 문이 열리고 손탁과 따냐가 들어간다.

거대한 공사관 로비를 지나 계단을 오르고 다시 복도를 한참 지나 작은방을 몇 개나 지난다.

나인들과 의전관들이 손탁과 따냐를 보며 수근 거린다.

공사관의 구조를 유심히 살피는 따냐. 왕의 거처가 있는 복도에는 경호부대가 지키고서있다.

손탁(영어)

왕은 각국의 귀빈과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만나고 있어요. 커피실은 할 일이 많지요.

공사관에서는 따냐가 커피를 맡아주기 바래요.

커피실 문이 열리고 커피기구들이 늘어져있는 탁자 앞에 선다. 기구들을 보고 있는 따냐.

<화면전환>

공사관 사람들과 손탁에게 커피를 끓여주는 따냐.

손탁은 커피와 물을 같이 끓여 철망에 걸러내듯이 커피를 만들었지만
따냐는 러시아에서 했던 것처럼 천으로 깔때기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커피를 붓고 뜨거운 물을 방울방울 천천히 내려서 만든다. 손탁의 커피와는 달리 진하게 우려 나오는 커피.
따냐가 만드는 것을 신기한 듯 보는 손탁과 공사관 사람들. 베베르가 따냐를 한참 바라본다.
커피에 설탕을 하나 녹이고 두 개째 녹이려는 손탁을 제지하는 따냐

따냐(러시아어)

잠깐만요! 설탕은 커피의 쓴맛을 없애주지만 지나치면 커피의 다른 맛까지 사라집니다.
잠시 쓴맛을 즐겨보시지요.

모두들 따냐의 말을 듣고 커피의 맛을 본다.
쓴맛 때문에 잠시 인상을 쓰더니 입맛을 다시면서 맛을 느끼고는 따냐를 본다.
미소로 인사하는 따냐.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진다. 커피 맛을 보고 놀라는 손탁.

46. # 외국상품 상점

허름한 상점 안으로 들어가는 손탁과 따냐. 외국인 주인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한다.
외국 식료품들과 상품들이 좁은 공간에 복잡하지만 질서 있게 진열되어 있다.
주인이 두 사람을 데리고 상점뒤편의 창고로 간다. 좁은 복도를 지나 어둡고 넓은 창고가 나온다.
한쪽 구석에 커피 자루들이 보인다. 커피 자루들을 풀어보는 따냐. 연두색 커피콩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는다.
손탁을 돌아보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따냐. 손탁과 주인의 표정이 밝아진다.

47. # 공사관 안 상황 몽파쥬

/커피 콩을 실은 마차가 공사관 안으로 들어간다.
/들어오는 콩을 보고 있는 따냐. 콩을 나르는 의전관과 눈이 마주친다. 따냐에게 편지를 전하는 의전관
/구석에서 조용히 편지를 보는 따냐. 얼굴이 밝아진다.
/북은 커피 콩 안에 숨겨둔 편지를 꺼내는 따냐. 슬쩍 의전관에게 전한다. 빈 자루 속에 담아 나가는 의전관.

48. # 공사관 앞

러시아 군과 일본군이 대치하고 있고, '환궁하라'는 유생들이 북적대는 공사관 앞.
담배를 피우는 뒷모습의 남자 일리치다. 따냐의 편지에서 커피 향을 느끼는 일리치

따냐의 목소리

당신이 조선에 왔다니 다행이야. 보고 싶어... 커피가 준비됐어. 곧 왕을 만나게 될 거야!

49. # 한양거리

어딘가를 찾아가는 듯 바쁘게 걷는다.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이 늘어난다. 일본인들이 사는 동네 한가운데 들어

온 따냐. 따냐의 복장을 힐끔 거리며 보는 사람들.
골목을 빠져나와 급하게 돌아서면서 어느 집 앞에 선다. 담 너머로 집안이 살짝 보인다.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이 집안에 서성거린다.
따냐의 회상에 등장했던 서재가 보인다.
집안을 보고 있는 따냐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마당에는 자기키 보다 높이 나무를 해온 어린 아이들이 줄지어 나무 값을 받고 있다. 굵신거리며 돈을 받아 나오는 아이들. 남루한 옷에 다리를 저는 아이도 보인다. 따냐 옆을 지나는 아이들. 그들을 보고 있는 따냐.
골목 뒤에서 따냐를 보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
일리치다. 따냐가 지나간 자리에 서는 일리치.
집안을 보는 아련한 일리치의 표정.

<회상>

러시아 별판. 역관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어린 일리치 (프롤로그의 장면)
역적의 집이라는 붉은 딱지들과 경고문이 붙어있는 집의 담을 넘는 종식. 별채를 향해 뛰어갔다.
숨어있는 할아범을 찾아내는 종식.

할아범

아기씨는 러시아로 도망쳤다. 달구아범이 러시아 배를 태워줬단다.

놀라서 뛰어나가는 종식.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뱃고동을 울리는 러시아배 갑판위에 단이가 보인다.
달구아범이 노를 젓는 작은 배위에 종식이 단이를 향해 손을 흔든다. 단이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었다.
종식은 양손을 더 크게 휘저으며 소리친다. 하지만 너무 멀어 종식을 알아볼 수 없는 단이
배는 빠르게 멀어지고 달구아범은 노 젓기를 포기한다. 종식이 눈에 눈물이 흐른다.

50. # 조선식 요정

요정 앞. 인력거에서 일리치가 내린다. 하인들의 안내를 받으며 요정 안으로 들어가는 일리치.

<화면전화>

방안에 술상을 마주하고 일리치와 군복을 입은 다케다(장교)가 마주앉아있다.

다케다

(일리치를 향해 썩소를 날리며) 사카모토! 난 니가 조선에 오는 걸 반대했어.

일리치

내가 어딜 가든 미우라씨의 명령을 따르는 거다.

다케다

러시아로 돌아가라!

일리치

내 임무는 가비작전이다. 너와 경쟁하는 게 아냐. 다케다!

그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요란하게 열린다. 한손에 술병을 든 취한 미우라가 들어온다.

미우라

(호탕하게 웃으며) 사카모토! 이제 돌아왔구나!

일리치

(미소 지으며) 잘 지내셨습니까?

미우라

(과장되게 손을 흔들며) 아니야! 아니야! (취해서 혀가 꼬인다) 왕 때문에 골치가 아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 (다케다와 일리치의 어깨를 두드리며)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이
위태롭구만! 이리와! 어서!

격 없이 털퍼덕 바닥에 주저앉은 미우라

일리치

(웃으며 가져 온 보드카를 내밀며) 보드카입니다

미우라

(천진스럽게 기뻐하며) 사카모토! 역시 니가 최고야!

일리치

(차분하게) 가비가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미우라

(보드카를 마시며) 잘했어! 잘했어! 나도 이제야 조선에 적응이 돼! 조선여자도, 술도
아주... 아주... 좋아지고 있어....

다케다

(비꼬듯) 조선왕이 부러우시겠습니다...

미우라

다케다 뭐가 그리 빼딱해? 세상이 니 뜻대로 되면 넌 심심해서 하루도 못살아! (병을
들어 건배를 청하며) 오늘은 잊어버려! 즐겨야 인생이야. 사카모토!

보드카를 마시는 세 사람. 문이 열리고 기모노를 입은 조선여자들이 줄을 지어 들어온다.

다케다와 일리치의 시선이 마주친다.

51. # 공사관 어느 방(상궁 방)

따냐,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궁녀들과 상궁이 기다리고 있다.

부제상궁

나인 신분도 아닌 니가 전하를 모실 수는 없다. (옆에 있는 금희를 보며) 수랏간
나인에게 러시아차 만드는 법을 일러 주거라.

따냐

저는 공사관의 손님을 대접하라는 베베르 공사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일은 제가 할 일입니다.

금희 (수랏간 나인)

이런 무례한 년!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이냐!

따냐

제게 명 하실 일이 있으시면 베베르 공사님께 말씀 하시지요.

그때 손탁 여사가 들어온다. 부제상공과 눈인사를 하는 손탁

손탁(러시아어)

따냐! 커피를 준비해줘요

부제상공에게 인사하고 방을 나가는 따냐.

부제상공

(금희에게) 따라 가거라 한시도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금희

네! माम님

52. # 러시아 공사관

공사관 복도. 손탁과 함께 왕의 커피를 가지고 걸어가는 따냐. 손탁과 비슷하게, 드레스 복장을 하고 있다.

<화면전환>

접견실. 손탁은 고종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따냐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다.

따냐의 시선으로, 햇살에 반사되어 실루엣만 보이는 고종의 모습. 그런 고종을 힐끔 보는 따냐.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고종. 평소와는 다른 맛에 미간을 찌푸리는데

손탁

전하 천천히 맛을 보시 읍소서 서양에서 유행하고 있는 커피 읍니다.

천천히 맛을 느껴보는 고종. 달라진 맛을 느끼는듯하다. 잔을 내리면서 따냐를 보는 고종.

고종

(화가 난 듯) 여기가 궁이 아니라고 그따위 옷을 입었느냐!

놀라는 손탁 뭐라 하려 하는데,

따냐

(고종의 시선을 피하며 또박또박) 저는 궁녀가 아닙니다.

고종, 사나운 눈길로 따냐를 쏘아본다. 놀라는 부제상궁과 금희. 손탁이 따냐를 돌아본다.

<화면캡처>

시간이 흐르고, 더욱 더 화려한 드레스들을 입고 있는 따냐.

외국 공사들과 선교사들이 축음기를 틀어놓고 고종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손탁이 고종의 눈치를 보며, 따냐에게 커피를 따르라고 하지만, 따냐에게 물러나라고 손짓하는 고종.

모두 뒤로 물러나는 따냐를 본다. 금희는 따냐 뒤에서 따냐를 흘려보며 고소해 한다.

53. # 산중턱

산들이 겹겹이 쌓인 풍경이 펼쳐진 산중턱 바위길. 힘겹게 올라오는 늙은 미우라 숨이 차다.

미우라

(멀리 산을 보면서) 일본은 바다의 나라지만 조선은 산의 나라야. (숨을 고르며 일리치에게) 도요토미가 조선을 정복하지 못한 건 저 산 때문이야.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바위 위에 올라선 미우라와 일리치

미우라

(풍경을 보며) 아무리 넘어도 끝이 없는 저 산들이 두렵게 만든 거지....

그때 측량대를 들고 뛰어오는 조선소년.

미우라에게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 하고는 미우라 옆에 측량용 표시 막대기를 들고 선다.

멀리 측량기를 보며 소리 지르는 일본측량기사

일본측량기사

(깊숙히 머리를 숙여 인사하며) 죄송합니다 선생님

미우라

(손을 휘저으며) 아니야 괜찮아 어서 어서 서두르게 (웃으며)

일리치에게 손을 내미는 미우라. 일리치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펼친다. 지도다.

미우라

(지도와 풍경을 비교해보며) 바다는 모두가 모여서 깊어지는 곳이지만 산은 정상이 출발이자 끝이다. 사카모토! 왕은 조선의 정상이야. 왕이 곧 시작이자 끝이다.

일리치

가비가 왕을 만났습니다. 이제 왕의 계획을 알게 될 겁니다

미우라

정상은 언제나 외롭다. 왕이 가비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54. # 공사관 커피실

커피잔과 도구들을 손질하고 있는 따냐. 호기심 많은 눈빛을 감추며 따냐가 만지는 물건들을 보고 있는 금희. 그 순간 다가오는 부제상궁.

부제상궁

가비를 내올 시간이다. 손탁 여사는?

따냐

급한 일이 있어 호텔에 가셨습니다.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따냐를 보는 부제상궁의 눈빛이 못마땅하다.

55. # 고종 접견실 앞

부제상궁의 뒤를 따라 따냐가 커피기계와 주전자를 가지고 들어간다. 금희도 그 뒤를 따라간다. 고종의 심복이 따냐 앞을 막아선다.

심복

무엇이냐 펼쳐봐라

따냐

가비를 만드는 그릇들입니다.

돌아보는 고종. 심복과 눈이 마주친다. 고종이 심복에게 눈짓을 하자 물러서는 심복.

다가오는 따냐를 유심히 보는 고종. 따냐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는 심복. 부제상궁과 금희가 따냐 뒤에 선다.

고종 앞에 내려놓는 커피도구들과 커피콩. 그것들을 바라보는 고종.

따냐

가비 내리는 법을 직접 보시겠습니까? 전하! 방안에 가비향이 오래 머물 것 입니다.

아무 말 없이 따냐를 바라보는 고종.

<화면전환>

커피를 분쇄기에 넣고 간다. 따냐의 설명이 시작된다.

따냐

가비 나무는 열대의 높은 지대에서 자란다고 들었습니다. 가비 열매는 붉은 색의 앵두를

닭았다고 합니다.

따냐의 모습을 보는 고종

따냐

그 과실의 씨앗이 가비콩이운데 원래 가비콩은 연두색이지만 불에 볶으면 이렇듯 짙은 색으로 변합니다.

갈아서 준비한 커피를 응 깔때기에 받치고 천천히 뜨거운 물을 내린다.

따냐

가비를 볶을 때는 과일이나 꽃향기가 섞여나고, 잘게 부셔 갈 때는 가비만의 고소한 향이 납니다. 뜨거운 물에 우려낼 때는 은은한 향을 내면서 신맛과 쓴맛이 나옵니다.

내려진 커피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잔에 따른다.

따냐

가비를 마신 뒤 혀끝에 남은 맛을 느끼시면 이 모든 향이 맛으로 변해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한 향을 맡아보는 고종. 마시지 않고 잔을 내려놓는다. 무표정한 고종. 그런 고종을 보는 따냐

고종

한잔 더 만들어라.

따냐

(왕의 말에 놀라며) 향이 좋지 않으시면 다른 커피를 준비하겠습니다.

고종

아니다. 방 안에 가비 향을 채우라.

왕의 말에 고개를 숙이는 따냐. 다시 커피를 분쇄기에 넣고 간다.

넋을 잃고 따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금희. 부제상궁이 금희를 툭 친다. 정신을 차리고 자세를 고쳐 잡는 금희. 조용히 커피 만드는 일을 반복하는 따냐. 그 모습을 지켜보는 고종.

따냐 목소리

왕이 입을 열었어. 사람들 앞에서는 커피를 즐기지만 혼자서는 마시지 않아.

56. # 거리

드레스를 입은 따냐가 앞장서서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따냐의 뒤를 놓칠까봐 열심히 쫓아가는 금희.

그런 금희 모습을 슬쩍 보며 미소 짓는 따나.

57. # 외국상품 상점

나인 금희가 신기한 외국 상품들에 눈이 팔려있다. 이것저것 만져보고 냄새를 맡는다.

치즈냄새를 맡고서는 깜짝 놀라며 내려놓는다.

<화면전환>

식료품 가게 창고에서 커피가 아니라 다른 물건들을 보고 있는 따나.

나무상자를 열고 물건을 꺼내면 영국식 도자기 커피 잔이다. 잔을 살펴보고 미소를 짓는 따나.

새로 온 다른 상자들을 열어보는데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따나를 덮친다.

따나의 입을 막고 어두운 구석으로 끌고 오는 사내. 놀라는 따나. 벽으로 몰아세운다.

따나의 입을 막고 있는 손을 푼다. 일리치다.

놀란 따나의 표정이 풀어지며 일리치의 얼굴을 살핀다.

말없이 서로의 시선을 느끼는 두 사람.

천천히 다가오는 일리치의 입술. 일리치에게 매달리며 키스하는 따나

<화면전환>

상점 안 금희가 신기한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상점 주인이 다가온다.

금희가 보고 있던 물건을 뜯어서 맛을 보여준다. 초콜렛. 맛에 놀라는 금희. 주인도 같이 먹으면서 웃는다.

<화면전환>

창고 안. 마치 안고 있는 듯 가까이 붙어 있는 두 사람

따나

보고 싶었어

일리치

상점주인은 우리 편이야. 다음부터는 혼자야

따나

어디든 따라다녀... 상궁이 날 감시하라고 시켰어.

일리치

내가 없을 땐 이벽에서 메시지를 찾아. 이곳 어딘가에 편지를 숨길거야 여기서 읽고 없애버려.

따나

왕이 마음을 열지 않아.

일리치

서두르지 마! 커피에만 집중해!

아쉬운 듯 서로를 보는 두 사람. 짧지만 깊은 키스를 한다.

58. # 공사관 접견실 몽따쥬

/저녁 수라상을 물리는 고종. 연유깡통과 달걀껍질을 보는 따냐.
상점에서 가져온 잔을 내려놓는 따냐.

따냐

서양 사람들이 가비를 마실 때 쓰는 잔이옵니다.

고종의 잔을 채우고 자기 앞에 작은 종지를 놓고 커피를 따르는 따냐. 따냐의 행동에 놀라는 금희.

따냐

가비는 검고 쓴맛이 강해서 서양에서도 독을 타는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종지의 커피를 마셔 보이며) 전하의 걱정을 미리 덜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따냐를 유심히 쏘아보는 고종 천천히 커피를 마신다.
두 사람을 지켜보는 금희.

59. #공사관 복도 / 베베르 집무실

/복도를 걸어가는 따냐. 숨어서 따냐의 모습을 보는 금희.
베베르 집무실 앞으로 가는 따냐. 미행을 느끼며 들어가는 따냐.
따냐의 뒤를 밟던 금희, 고종의 심복에게 귓속말을 한다.
<화면전환>

/베베르 앞에서 보고하는 따냐.

따냐(러시아어)

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베베르(러시아어)

왜?

따냐(러시아어)

공사관에서도 독살을 걱정하는 왕입니다. 커피만으로 경계심을 풀 순 없습니다.

답답한 베베르.

60. # 고종 접견실 - 아침

고종 앞에 커피를 내어주는 따냐. 따냐를 쏘아보는 고종.
금희를 내보내는 심복.

고종

러시아 말을 잘한다고 들었다.

따냐

겨우 말을 주고받는 정도입니다.

고종

그 재능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누구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냐!

따냐

(당황을 감추며 차분하게 달래듯) 가비를 마시며 하는 말은 먼지처럼 가볍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전해 무엇 하겠습니까?

고종

내 말을 먼지 취급하겠다는 것이냐?

따냐

어떤 말도 전하지 않겠습니다.

고종

나는 누구 말도 믿지 않으니, 그런 다짐은 필요 없다! 김홍륙과 베베르가 내게 금괴를 줬다. 그리고 러시아말을 한다는 니가 커피를 들고 찾아왔다. 큰돈을 주면, 그보다 더한 것을 가져야 되는 게 인간이다. 너희가 내게서 뭘 뺏으려는 거냐? (따냐를 노려보며)

따냐

(도발적으로) 그토록 뺏기시고, 아직 더 내어주실 게 있으십니까?

커피 쟁반을 신경질적으로 던져버리는 고종, 깨어지는 잔과 주전자. 따냐의 치마폭을 적시는 커피 물.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는 따냐.

따냐

저들은 조선의 왕보다 일본을 더 신경 쓰고, 전하의 안위보다는 이권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저를 이용하십시오. 전하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고종이 따냐를 노려본다. 당당히 시선을 이기고 있는 따냐.

61. # 박

접견실 밖으로 나오는 따냐, 금희가 따냐 뒤를 따른다.

금희

무슨 일이야?

거실에 베베르와 손탁, 김홍륙등의 모습이 보인다.

젓어 있는 따냐의 옷과, 쟁반 위에 놓인 깨어진 조각들을 바라보는 베베르.

베베르(러시아어)

왕이 던진 것이냐?

따냐(러시아어)

외롭다고 하십니다. 외로움이 커지면, 분노가 생기지요. 그럴 땐, 그릇이라도 던져야
풀리지 않겠어요?

커피실로 가는 따냐. 따냐를 보는 손탁. 러시아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금희 답답해하며 상공실로 달려간다.

62. # 커피실

따냐가 인상을 쓰며 치마를 들추면, 커피 물에 든 허벅지 부분이 빨갛게 물들어 부어오르고 있다.
찬 수건을 짜서, 갖다 대는 따냐, 갑자기 짜증이 난 듯 수건을 던져버린다. 혼란스러운 따냐의 얼굴.

63. # 외국상점 창고 안

벽에 쓰여 있는 일리치의 러시아 메모를 보는 따냐.

일리치 목소리

왕이 김홍륙과 친러세력을 경계하고 있어. 그들의 반대편에 서! 왕의 마음이 열릴 거야.

메모를 지우는 따냐.

64. # 접견실

공사관사람들과 김홍륙 친러 세력, 반대편에는 민영환과 러시아교관이 앉아 있다.

커피를 만들면서 친러 세력들을 보는 따냐.

따냐가 커피를 내놓고 있다. 따냐와 금희가 나가려고 한다.

고종

따냐는 곁에서 가비 시중을 들어라.

모든 사람들 따냐를 본다. 고종의 곁에 앉아 가비를 저어주는 따냐. 고종과 따냐 눈이 마주친다.

고종

민영환 사령관이 말하기를 아직 신식무기와 호위병들은 오지 않았는데, 러시아
공사관에서 가져가는 돈은 넘쳐난다. 장부를 보여 달라고 전해라

당황하는 김홍륙. '공사관 주변의 경계를 더 강화해줬으며 좋겠다고 하신다'

김홍륙의 통역을 듣는 따나.

베베르-알겠다. 알겠다고 전하는 김홍륙.

고종

(갑작스럽게 따나를 보며) 통역이 옳은 것이냐?

접견실의 모든 사람들 갑작스러운 사태에 놀란 얼굴이다. 고종의 심복, 민영환은 담담한 표정이다.

김홍륙 절실한 눈빛으로 따나와 눈이 마주친다. 베베르 역시 뭔가 심상찮은 일이 벌어진 듯 따나를 바라본다.

따나

전하의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통역은 잘못했습니다.

김홍륙

(바로 치고 들어가는) 돈에 얽힌 문제니 전하의 의중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근본 없이 러시아를 떠돌았던 계집이 외교문제를 알겠습니까?

고종

공사관에서는 근본 없이 떠돌았던 계집을 내 곁에 보냈다는 것이냐?

따나, 소란스러운 와중에 도도하게 서 있다.

<화면결침>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심복만 남았다. 커피 잔을 치우는 따나.

고종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가비를 준비해라. 하루도 잊으면 안된다
내 눈과 귀가 되겠다고 했으니, 널 지켜주겠다.

따나와 고종 눈이 마주친다.

65. # 공사관 복도

커피 잔과 도구들을 들고 접견실을 나오는 따나

기다리던 금희 따나에게 주눅 들어 마치 하인처럼 따나의 짐을 나눠 드는데

두 사람 앞을 가로막는 김홍륙. 깜짝 놀라는 금희 재빨리 비켜선다.

김홍륙

(따나를 잡아먹을 듯) 네 이년! 함부로 입을 놀리면 제명까지 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때 심복이 문을 열고 김홍륙을 응시한다. 멍칫하는 김홍륙. 못 마땅한 듯 헛기침을 한다.

따나, 심복을 의식하며 자연스럽게

따냐

(고개를 숙이며 당당하게) 명심하겠습니다.

김홍륙을 비켜가는 따냐. 화를 참으며 따냐의 뒷모습을 노려보는 김홍륙. 심복을 의식하며 사라진다.

66. # 커피실

금희가 먼저 들어와 짐들을 내려놓고 서둘러 따냐의 짐을 받으며

금희

(흥분해서) 미쳤어! 미쳤어! 그분이 어떤 분인데....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진짜 그러다간 제명에 못살아요. 모두들 그분한테 줄을 못 대서 안달인데 이젠 원수가 됐잖아요.

따냐

(미소지으며) 넌 괜찮을 거야 걱정 마!

금희

아휴 답답해!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따냐의 손을 끝면서) 빨리 상궁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김홍륙 어르신이 상궁님께 신세 진 게 많으니까 상궁님 말씀이면 화를 푸실 거예요.

따냐

상궁마마님도 날 싫어하시잖아

금희

아니요. 길으로만 그러시는 거예요. 바르고 똑똑하다며 궁녀가 아닌 게 아쉽다고 하셨어요. 어서가요

따냐

왜 갑자기 존대하는 거야?

금희

네? (그제서야 놀라며) 뭐... (당황해서) 그냥... 언니 같아서...

따냐

(웃으며) 걱정마. 위험해지면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지 뭐!

가져온 커피잔들을 챙기는 따냐. 따냐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금희.

67. # 숲속 길

말을 타고 숲속을 달려가는 일리치. 뒤를 돌아보며 어디론가 달려간다.

숲속 길 끝에 달려온 일리치. 르윈스키가 기다리고 있다.

르윈스키

(화가 나서) 베베르공사가 따냐때문에 화가 났어.

일리치

(차분하게) 왕이 러시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냐가 왕의 편이 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르윈스키

(화를 내며) 이작전의 책임자는 나다. 베베르를 도와줘!

일리치

(강하게 응시하며 단호하게) 따냐의 목표는 왕입니다. 베베르의 부하가 아닙니다. (강조하듯) 따냐는 저의 지시만 따릅니다.

르윈스키

(일리치 기세에 놀리며 어쩔 수 없이 시선을 피한다) 왕이 공사관에서 은밀한 모임을 갖는다는 보고다.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 알아 봐!

일리치

제가 결정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르윈스키

(일리치를 노려보는 르윈스키)...

일리치

여긴 조선이고 상대는 조선의 왕입니다. 따냐와 저를 믿지 못하면 모든 걸 잃을 겁니다.

르윈스키

너의 결정을 따르겠다. 정보국을 실망시키지 마라.

68. # 외국상품 상점

참고 안. 일리치에게 기대어 안겨있는 따냐

따냐

왕의 편에 서면 모두가 적이야. (답답해하며) 무인도에 갇힌 것 같아.

일리치

(따냐를 안아주며) 조선에서 불행을 끝내고 싶다고 했지?

따냐

(슬프게) 끝낼 수 있을까?

일리치

불행의 시작은 왕이야. 복수만 생각해. 더 가까이가야 돼.

따냐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져

일리치

걱정 마! 내가 지킬 거야.

불안한 따냐의 눈빛을 보는 일리치. 따냐를 안아준다.

일리치

왕이 공사관 안에서 몰래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 그들이 누구지? 왜 왕을 만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돼!

그때 금희가 따냐를 찾는 소리가 난다. 어둠속에서 나오는 따냐.

혼자 남겨진 일리치의 표정.

69. # 공사관

금희와 함께 돌아온 따냐. 계단을 올라 복도로 접어드는데 심복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

금희에게 물러가라는 눈짓을 하는 심복. 표정이 굳어지는 금희가 따냐의 손을 끌고 계단을 다시 내려온다.

금희

언니 잠깐만요.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따냐 조용히 금희를 따라 내려간다. 따냐의 시선을 피하는 금희.

70. # 커피실

금희를 끌고 들어오는 따냐.

따냐

금희야! 무슨 일이야?

금희

(곤란해 하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냐

왜 자리를 피한거야

금희

(피하며) 언니 그냥 모른척하세요.

따냐

금희! 부탁이 있어

금희

(괴로운듯) 안돼요 언니! 저도 몰라요. 묻지 마세요.

따냐

궁녀 옷을 구해줘.

금희

(아니 이게 아닌데) 네?

71. # 상궁방

상궁이 따냐 앞에 앉아있다.

부제상궁

(근엄하게) 궁녀복을 입겠다고 하였느냐.

따냐

네

부제상궁

그 옷의 의미를 아느냐?

따냐

궁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제상궁

평생 왕의 여자로 사는 것이다. 그래도 입겠느냐.

따냐

네.

놀라는 금희. 따냐를 본다.

72. # 공사관 복도

궁녀 복을 입은 따냐가 복도 끝에 몸을 숨기고 있다.

어두운 계단 끝에 심복이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 올라오자 그들을 데리고 고종의 거처로 들어가는 심복.

숨어서 그 모습을 확인하는 따냐

73. # 외국상점 창고 안

일리치가 창고 벽 깊숙이 러시아어로 쓰여진 따냐의 메모를 확인하다

따냐의 목소리

왕에게 가까이 갈수 있어. 특별한 커피가 필요해.

<화면전환>

상점주인에게 특별한 커피 자루를 건네받는 금희.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일리치.

74. # 커피실

금희가 가져온 커피 향을 확인하는 따나.

금희

무슨 커피예요?

따나

아주 높은 지대에서만 나는 특별한 커피야

커피를 확인하고는 팬 위에 볶는 따나

금희

언니 어찌려구요?

따나

커피를 대접해야지.

금희

지금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볶고 있는 따나.

75. # 접견실 앞

공사관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가는 따나와 뒤따르는 금희.

궁녀복을 입고 커피 도구들을 들고 간다. 아무도 없고 조용한 접견실 앞.

따나

전하! 가비웁니다.

심복

(문을 열면서 급하게) 무슨 일이나, 가비시간이 아니다.

열려진 문사이로 고종과 눈이 마주치는 따나. 고종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앉아있다.

궁녀 복을 입은 따나를 보는 고종.

따나

(놀라는 금희를 보며) 먼 곳에서 온 특별한 커피를 구했습니다. 전하께 올려야 할 것 같아 급히 만들었습니다.

심복

지금은 때가 아니니 가서 기다리거라.

따냐

(고종과 다시 눈이 마주치는데) 네! (물러나려는데)

고종

들라해라!

고종의 소리에 놀라는 심복. 검은 옷의 사람들도 고종의 소리에 놀란다.

심복

(난처해하며) 전하! 지금은...

고종

이들에게도 가비를 내거라.

따냐

네 전하! (금희에게) 커피와 물을 더 가져오너라.

얼어있던 금희 재빨리 커피실로 뛰어간다.

고종과 눈이 마주치는 따냐. 따냐가 입은 궁녀 복을 보는 고종.

고종의 얇은 미소를 보는 따냐. 시선을 피하는 따냐.

검은 옷의 사내들. 고종의 표정을 살피며 난감해 한다.

고종

걱정마라! 공사관에서 내 눈과 귀가 되는 아이다. 계속 하거라

별입시 1

(그제서야 경계를 풀며)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얻은 대만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아 고전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따냐의 모습과 토론하는 고종과 검은 사내들의 모습들이 교차된다.

따냐의 목소리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했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왕과 정기적인 회합을 하고 있었어.

그 위로 따냐의 목소리가 겹쳐진다.

고종

조선의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별입시 3

하지만 전하! 군대를 만들기에는 군자금이 부족합니다.

고종

왕실자금을 따로 모았으니 걱정할 것 없다. 당장 일 만명의 군사를 확보해야 한다.

중립국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삼만 이상의 군대가 필요하다. 각 지역의 의병대장들과

해산한 구식군대 대장들을 직접 만나 설득해야 한다. 그들이 나서야 조선을 다시 세울 수 있다.

별입시들 앞에 커피를 놓고 물러나는 따냐. 그때 따냐를 불러 세우는 고종.

고종

가까이 오너라! (따냐 앞에 밀봉된 러시아편지를 내밀며) 읽어 보거라.

고종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는 별입시들.

따냐 놀라며 편지를 받아 펼친다. 러시아어로 쓰여진 편지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다. 천천히 읽어나가는 따냐.

따냐

조선 정부와의 성공적인 거래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베르단 총탄 700상자는 선적을 마쳤으며 도착할때까지 15일 이 걸립니다. 베르단 소총의 거래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고종에게 편지를 건넨다. 따냐의 능력에 놀란 듯 바라보는 별입시들.

고종

소총 1000자루를 구입할 것이며 가능한 빨리 받을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답신을 쓰거라. 쓸 수 있겠느냐?

따냐

네 전하

별입시들과 시선이 마주치는 따냐. 말없이 인사하는 따냐.

76. #일본 밀실

미우라와 일리치가 다케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일리치

별입시들입니다. 관직도 없으며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각 지방의 유지들과 연결되어있으며 의병들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우라

가비가 어떤 아인지 궁금하구나. (일리치를 보며) 그렇게 신중하던 왕이 이리도 술술 풀어 놓다니...

다케다

왕이 대만의 상황까지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까지 구입한다면 왕을 막기

어려워집니다. 왕을 공사관에서 납치해야 합니다.

일리치

지금 러시아와 맞서는 것은 무모합니다. 가비의 정보에 집중하면서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미우라상!

다케다

모든 작전을 가비에 의존하는 건 무립니다.

미우라

왕이 스스로 공사관을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다케다와 일리치에게) 별입시들을 잡아서 왕의 손발을 묶어라. 왕을 불안하게 만들어!

77. # 군함 갑판 위

르윈스키가 일리치를 만나고 있다.

르윈스키

왕이 공사관 몰래 러시아제 총탄을 구입했다? 우리가 교관과 군사고문까지 파견했는데 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지?

일리치

일본을 경계하는 겁니다.

르윈스키

무슨 말이나

일리치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 몰래 조약을 맺었습니다. 왕은 더 이상 어느 쪽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도 숨기는 겁니다.... 왕이 거래한 거래선을 찾아 주십시오.

르윈스키

그쪽은 왜?

일리치

우리가 직접 무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르윈스키

무기거래를?

일리치

조선군이 무장하는 것은 일본에게는 위협입니다. 우리가 적극 도와야 할 일입니다.

르윈스키

...알았어

일리치

그리고...부탁이 있습니다. 뉴욕에 집을 알아 봐주십시오.

르윈스키

뉴욕에?

일리치

(가볍게)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78. # 고종 집무실

커피를 따르는 따나

고종

서양인은 왜 가비를 즐기느냐?

따나

서양 사람들은 가비를 마시며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진리를 찾는 이야기든, 반역을 꿈꾸는 이야기든, 커피 앞에선 벽도 신분도 사라지고 생각을 열어줍니다. 때문에 커피를 신비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편안히 즐겨 보시옵소서.

고종

그렇다면... 너의 잔도 만들 거라.

따나

(갑작스러운 말에 고종을 보면)...

고종

마음을 열려면 받아줄 상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심복

(앞으로 나서며)전하! 하찮은 나인입니다. 그러시면 아니...

고종

(심복의 말을 막으며) 괜찮다! 가비는 격식이 없는 차라 하지 않느냐.

(따나에게) 어서 만들 거라.

뒤로 물러나는 심복. 조용히 작은 종지를 치우고 잔을 하나 더 준비하고 커피를 따르는 따나 마주보며 커피를 마시는 두 사람.

고종

가비를 마시면서 하는 말은 먼지처럼 가벼우니...대답해 보아라. 백성들은 나를 어찌 말하느냐?

따나

(머뭇거리다가) 백성은 뒷전이고, 돈만 밝히는 왕이라고 합니다.

고종

그뿐이냐?

따나

(난처한 듯 망설이다) 일본이 무서워 궁을 버리고 숨어 지내는 왕이라 합니다.

고종

(쓸쓸하게) 그 말들이 맞다. 나는 궁녀들의 가마를 타고 이곳으로 도망쳤다. 벌써 일 년이다. 이젠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고종이 잔을 비우자 따나가 또 한 잔 따른다

고종

(따나를 똑바로 보며) 헌데... 정말... 나에 대한 칭송은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던 말이나?

고종의 장난기어린 표정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따나.

고종

아직 너의 귀가 짧은 모양이구나 (웃으며)

환하게 웃는 따나. 따나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고종. 따나 고종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

고종

니가 바른 말을 해주니...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구나.

너를 보며 가비를 마시는 이 시간이 이제 기다려지겠구나.

잔을 들던 따나의 손이 멈춘다. 따나 마음에 흔들림이 느껴진다.

79. # 산속

일리치가 깊게 패인 호랑이 발자국을 확인하고 있다.

뒤따라 올라온 미우라가 숨을 몰아쉰다.

사냥 복장을 하고 소총까지 들었다.

미우라

호랑이 발자국 인가? 사카모토?

일리치

큰놈이네요. 새끼도 있습니다

미우라

살아있는 놈의 눈빛을 보고 싶어. 만날 수 있을까?

일리치

어렵습니다.

미우라

왜?

일리치

우린 발자국을 쫓고 있지만 그놈은 우릴 보고 있어요.

미우라

(주변을 둘러보며) 보고 있다고?

일리치

호랑이는 오리 밖에서 나는 소리도 잘 듣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소릴 듣고 그들의 뒤로돌아가 사람들을 감시하죠.

미우라

그래? 그럼 미끼를 들고 길목에서 기다려야겠군. (웃으며) 배가 고프면 우릴 잡으러 오겠지?

<화면전환>

폐가처럼 보이는 집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앉아있는 미우라와 일리치.

어린 조선 소년이 열심히 마른 가지들을 가져온다.

가지로 불을 지피고 있는 일리치

미우라

(조용히) 발자국을 쫓지 말고 미끼를 던져라 사카모토! 호랑이를 잡아! 가비는 좋은 미끼다.

미우라를 보는 일리치.

<화면전환>

밖에서 듣고 있던 다케다. 다가오는 부하에게

다케다

(조용히) 공사관과 궁에 사람들을 배치해. 따냐를 철저히 감시해라.

80. #고종의 접견실

커피를 따르는 따냐. 그런 따냐를 보는 고종.

고종

너는 처음에는 궁녀가 아니라고 했다.

따냐

(고개를 들어 고종을 보면)....

고종

그리고 스스로 차려 입은 의복은 무엇이냐?

따냐

(미안한듯) 궁녀 복입니다.

고종

(따나에게 서찰을 내밀며) 조용히 전하고 오거라. 눈을 피해 궁으로 나가거라.

서찰을 받는 따나. 난감하다.

81. # 공사관/비밀통로/궁 골목길/ 공사관 근처 교회 밖/안/밖

심복이 길을 안내하고 있고 따나가 뒤따른다.

비밀통로를 열어준다. 통로를 보고 놀라는 따나.

눈짓을 하는 심복. 통로 안으로 들어가는 따나.

어두운 통로를 더듬으며 한참을 가는데 불빛이 보이고 통로 밖으로 나간다.

궁 안의 모습이 펼쳐진다. 놀라는 따나.

한밤의 조용한 궁을 가로질러가는 따나. 궁 문을 빠져나간다.

한밤의 골목길을 찾아가는 따나. 골목을 돌아 나와 공사관 근처 교회로 들어가는 따나.

따나의 뒷모습을 보는 시선. 따나 뒤를 따르는 남자. 다케다의 부하다.

교회 안 서찰을 조심스럽게 열어본다.

글을 읽어 내려가는 따나. 마지막 선명한 오얏무늬를 확인하는 따나.

맨 앞으로 걸어가 십자가 옆 성물 보관소를 열고 서찰을 넣는 따나.

따나가 교회 밖으로 사라지자 다케다의 부하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하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 부하를 쓰러뜨린다.

능숙한 솜씨로 다케다 부하를 제압하고 얼굴을 확인하는 남자. 일리치다.

다케다의 부하임을 확인하는 일리치.

겁에 질린 다케다 부하. 간단히 부하의 목을 꺾어버리는 일리치.

82. # 접견실

고종이 다 마신 커피 잔을 바라보고 있다. 심복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따나.

고종

잘 전하였느냐?

따나

네

고종

(담담하게) 뭐라 쓰여 있더냐

따나

(놀라서 잠시 침묵하다가 두려운 듯)

....‘김구’라는 자를 사형에서.... 구하라는 명이셨습니다.

심복이 칼집에서 칼을 뽑는다. 놀라는 따나.

고종

중전의 원수를 갚겠다고 일본 장교를 살해한 자다.

내가 할 일을 대신 해준 그가 죽어야 하겠느냐?

따냐

아닙니다

고종

모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 궁금해 하지 마라.

따냐

(고종을 올려다보면)...

고종

(조용히) 다시는 읽지 마라. 많은 것을 알수록 위험해진다

따냐

(코끝이 찡하며) 명심하겠습니다.

조용히 칼을 거두는 심복.

고종

민영환에게 니가 조선을 떠난 이유를 들었다.

따냐

(놀라서 고종을 보며)...

고종

외로운 삶에는 원치 않는 길이 있기 마련이다. 니가 어떻게 살아 왔는지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 눈과 귀가 되겠다는 약속만을 지키거라. (나즈막히) 널... 잃고 싶지 않구나.

따냐

(차마 고종을 보지 못하고) 전하를 따르겠습니다.

83. #커피실

일리치에게 쓰던 편지를 불속에 던지는 따냐.

멍하니 불앞에 앉아있는 따냐. 타는 불꽃만 바라볼 뿐...

따냐 목소리

나를 믿는 건지 의심하는건지 모르겠어. 점점 왕을 속이는 게 힘들어.

84. #외국상품 가게

어두운 창고구석에 숨어있는 일리치와 따냐.

일리치

속일 필요 없어. 왕이 원하는 대로 해!

따냐

날 의심하고 있다면...

일리치

걱정 마 모든 것이 왕이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우리가 무기를 구해 줄 거야. 왕이 군대를 만들면 궁으로 돌아 갈 거야. 그러면 따냐 임무는 끝이야. 공사관으로 드나드는 별입시들의 출입로를 찾아줘.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85. # 고종 거처/ 비밀통로 교차 밤-새벽

공사관 구석 비밀통로 입구에 나타나는 따냐. 주변을 살피고는 준비한 등불을 들고 통로 안으로 들어간다.

일리치의 목소리

비밀통로의 다른 쪽 입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왕의 집무실. 천천히 상소들을 하나씩 펼쳐 읽기 시작하는 고종.

/좁고 어두운 통로를 따라가는 따냐. 벽을 살피지만 다른 통로는 없다.

궁 앞까지 다다른 따냐 다시 돌아선다.

그때 고요하던 등불이 흔들린다. 어디선가 미세한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을 따라 다시 통로 안으로 들어가는 따냐.

통로 벽 틈에서 세어 나오는 바람.

벽틈 안을 보려고 다가가는데 스프르 벽이 밀려난다.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등불이 꺼진다. 암흑이 된 통로 안.

/왕의 집무실. 끝도 없는 상소들을 읽고 있는 고종의 모습.

/조용히 출구 앞에 선 따냐. 놀란다.

누군가의 집 뒷마당 이다. 집안은 조용하고 집안에는 흐릿한 불빛이 있다.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주변을 살피며 집안을 둘러보는 따냐. 멀리 러시아 공사관 탑이 보인다.

/왕의 집무실. 읽던 상소를 덮고 의자에 기대앉은 고종.

창밖이 밝아온다. 탁자위에 작은 종을 흔든다.

계속 종을 울리는 고종. 심복이 뛰어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

고종

(신경질적으로) 따냐는 어찌된 거냐?

심복 고개를 숙이고 돌아나가려는데 고종 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경질적으로 일어나 직접 문을 연다.
문 앞에 서있는 따나. 인사를 하는 따나

따나

가비 옵니다. 전하!

따나를 보는 고종.

<화면전환>

커피 잔을 채우는 따나. 따나의 모습을 찬찬히 살피는 고종.
따나 이마와 귀 뒤 목덜미에 송글 맺혀 있는 땀방울을 본다.
고종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따나. 그때 땀이 한 방울 흘러 따나의 손위에 떨어진다.
당황하는 따나. 따나를 보는 고종.
날계란을 깨어 담는 고종. 그 모습을 보는 따나.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따나.

따나의 목소리

비밀통로는 공사관 북쪽의 어느 양반집과 통해 있었어.

86. # 일리치 상황 교차 몽따쥬

/밤. 따나가 알아낸 비밀통로의 끝. 집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는 일리치. 드나드는 별입시들을 주시하고 있다.

/밤. 어두운 골목길을 뒤를 돌아보며 빠르게 가는 남자1. 그 뒤를 따르는 일리치.
남자가 조용히 어느 폐가 안으로 들어간다. 폐가 안에 서너 명의 별입시들이 모여 있다.
왕의 서찰을 나눠받는 별입시들. 서로에게 눈짓을 하며 일어서려는데...
그때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일리치. 놀라는 별입시들 일제히 칼을 뽑는다.
하지만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하는 일리치. 왕의 서찰을 확인하는 일리치.
러시아어로 쓰여진 서찰이다. 오얏꽃 무늬를 확인하는 일리치

/뗏목 같은 배가 강을 건너간다. 강 저편에 도착할 때쯤, 타타탕 타타탕.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잠복하고 있던 일리치와 낭인들이 나타난다. 흩어지는 뗏목위의 사람들. 일리치가 두목으로 보이는 한명을 잡는다. 잡힌 사람들은 품에서 칼을 꺼내 스스로 자결한다.

일리치 목소리

러시아와 내통하던 왕의 손발을 잘랐습니다.

87. # 미우라 방

미우라와 일리치가 마주앉았다.

일리치

곧 왕은 궁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비작전이 끝납니다. (미우라를 보며)
거기가 작전의 끝입니까?

미우라

(웃으며) 너의 상상이 궁금하구나. 더 이상 작전이 필요하겠느냐?

의미를 알 수 없어 고개를 숙이는 일리치
그런 모습을 보며 웃는 미우라.

88. # 고종의 거처

고종이 검은 옷을 입은 별입시들을 있다.

별입시1

결사대가 또 습격을 받았습니다. 상단에서 통역을 하던 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기를
받기위해선 새 통역자가 필요합니다.

별입시2

러시아로 가는 별입시들이 매번 당했습니다. 밀고자가 있습니다.

고종

(분노를 참으며 심복을 향해) 반드시 찾아 내거라.

89. # 공사관 상황 몽따쥬

/거실. 신료들이 회의를 하는데 심복과 친위대들이 들어온다. 놀라는 대신들의 반응.
/궁녀거처. 친위대원들에 의해 방에서 쫓겨나는 상궁과 궁녀들.
/커피실. 친위대원들에 의해 수색을 당하는 커피실. 금희가 벌벌 떨며 서있다.
/거리. 태연하게 외국상점을 향해 가는 따냐와 이를 쫓는 별입시.
/상점 안. 커피콩에 향을 맡아보는 일리치. 시계를 꺼내 본다.
/따냐가 상점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심복. 수하들에게 눈짓을 한다.
/창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심복과 친위대원들. 따냐가 놀란 표정으로 서있다.
창고 안을 살살이 수색하는 친위대원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상점 밖으로 나오는 심복과 친위대원들.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일리치.
/공사관 담장 옆 일리치가 의전관에게 종이를 전한다. 펼쳐보는 의전관. 공사관 지도다. 몸에 숨기는 의전관.

90. # 커피실

연기가 자욱한 커피실. 무겁고 뜨거운 팬을 들고 커피를 볶고 있는 따냐. 비오듯 흘러내리는 땀을 닦는다.
그때 문이 부서지며 커피실로 뛰어 들어오는 의전관. 놀라는 따냐.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떠나와 눈이 마주치는 의전관.
그때 순식간에 날아오는 심복의 칼.
놀라서 팬을 놓치는 떠나. 커피가 바닥에 쏟아진다.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의전관. 다시한번 사정없이 날아오는 칼.
비명도 없이 뜯눈으로 숨을 거두는 의전관.
베베르와 공사관 사람들이 심복에게 달려와 거칠게 항의 한다.
이미 죽은 의전관을 살피는 공사관 사람들.
의전관의 몸속에서 피묻은 지도를 꺼내는 심복.
심복과 눈이 마주치는 떠나.

심복

일본의 첩자다. (통역을 하라는 듯 눈짓을 하며)

떠나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러시아말로) 일본의 첩자입니다.

떠나의 말에 놀라는 베베르와 공사관 사람들. 지도를 들고 사라지는 심복.

91. # 손탁 호텔

호텔 거실에서 외국 공사들과 관료들이 연회를 하고 있다. 구석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는 떠나.
손탁은 사람들을 챙기며 분주히 움직인다. 간간히 떠나에게 눈길을 주며 고마움을 표시하는 손탁.
미소로 답하는 떠나. 어두운 창문 너머로 남자의 그림자가 지나간다. 그림자를 유심히 보는 떠나. 일리치다.
주전자를 들고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떠나. 어두운 별채 방문이 조금 열려있다.
방안으로 들어가는 떠나.

<화면전환>

어두운 방안. 일리치가 기다리고 있다.

떠나

의전관이 죽었어

일리치

왕이 정보가 새는 걸 알았어. 의심을 돌리려고 일부러 알려 준 거야.

떠나

(놀라며) 날 위해 죽었던 말야?

일리치

이제 널 의심하진 않을 거야.

떠나

(신경질적으로) 못 참겠어. 말해줘. 누가 우리 편이야. 내 정체를 아는 사람이 누구야.

일리치

(설득하듯)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넌 안전해.

따냐

(원망하듯) 왕이 의심할때마다 누군가 희생되는 거잖아.

일리치

신경 쓰지마 왕에게 집중해.

따냐

(고개를 저으며) 아니... (냉정하게) 누군갈 보호하려고 날 버리겠지.

일리치

(단호하게)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따냐! 누굴 희생시켜서라도 널 지킬 거야. 널 포기 안 해! 날 의심하지 마!

따냐

... (시선을 피하며) 조선이 날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

일리치

무능한 왕이 조선을 불행하게 만든 거야.

따냐

아니었어... (고개를 젓는다) 도망쳤기 때문이야. 내가 조선을 버렸기 때문에 불행해진거야.

일리치

어쩔수 없었잖아. (설득하듯) 아버질 역적으로 만든 게 왕이야.

따냐

그건 운명이야. 내가 당신을 만난 것처럼.

일리치

(불안한 생각을 하며) 따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따냐

왕은 공사관으로 도망친 게 아니야... 조선을 버린 게 아니야.

일리치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더 이상 왕은 조선의 주인이 아니야.

따냐

(일리치를 보며) 두려워... 왕에게... 미안해지는... 내가... 두려워.

일리치를 보는 따냐의 눈빛이 불안하다.

92. #고종의 거처

베베르와 마주앉은 고종. 따냐가 커피를 만들어 낸다.

고종

(커피를 마시면서) 베베르 공사의 도움이 필요하오.

베베르

말씀 하시옵소서.

고종

난 조선을 제국으로 만들고 황제의 자리에 오를 생각이요.

통역을 하던 따냐 놀라움을 감추고 통역한다.

베베르

(놀라며)전하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일본과 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종

(베베르를 응시하며)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얻기 위해서 조선을 지원하고 있는 걸 알고 있소. 우리 스스로 조선을 지켜내지 못하면 러시아도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소. 러시아가 제국을 인정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뒤를 따를 것이요.

베베르

(고종의 기세에 놀리며) 전하의 뜻을 황제폐하께 전하겠습니다.

통역하는 따냐의 모습에 긴장이 돈다.

93. # 일본밀실

조선 지도를 펼쳐놓고 경부선 철도가 지나갈 자리를 펜으로 연결하고 있는 미우라

다케다

황제라뇨! 왕의 버릇을 고쳐줘야 합니다. 모든 걸 알았는데 뭘 망설이십니까?

미우라

조선은 보호국이 되어 한다. 자진해서 보호를 요청하는 보호국... (다케다에게) 자금을 풀어서 우리 편을 만들 거라. 백성들이 스스로 왕을 버려야 한다. (일리치에게) 러시아를 이기는 방법은 러시아가 조선의 적이 되는 거다.

일리치

조선은 러시아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있습니다.

미우라

왕은 러시아가 아니라 가비를 의지하고 있다. 가비가 조선의 적이 되는 거다. 사카모토.

일리치(사카모토)

(무슨 뜻이지? 미우라를 보며)....

다케다가 일리치를 노려보고 있다.

94. #밀실 앞

심각한 표정으로 나오는 일리치. 뒤에서 다케다가 부른다.

다케다

가비작전의 끝이 뭐지?

일리치

난 미우라상의 명령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

다케다

가비작전은 실패할거야. 넌 따냐를 포기 안할 테니까...

일리치

니가 한 짓들 알고 있다. 더 이상 관여하지 마라. 경고다. 다케다.

다케다

난 널 안 믿어 사카모토. 뒤에 내가 있다는 걸 명심해!

다케다의 말을 무시하듯 앞서지나 가는 일리치. 다케다 다가오는 부하 나카무라에게

다케다

러시아정보국 전신을 도청해! 일리치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알아봐.

95. # 커피실

따냐가 커피실로 들어간다. 심복이 따냐를 기다리고 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따냐와 심복을 보는 금희.

심복

(금희에게) 나가 있거라!

눈치를 보고 있던 금희. 못이기는 척 나간다.

서찰을 내미는 심복. 봉투에는 오얏 무늬가 선명하게 찍혀있다.

심복

경복궁으로 가거라. 북쪽에 있는 신문문에 가면 누군가 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서찰을 받아든 따냐.

96. # 다케다의 밀실

다케다가 부하 나카무라에게 보고를 받고있다.

나카무라

일리치가 러시아 정보국을 통해서 왕에게 무기를 제공할거랍니다.

다케다

왕에게?.

나카무라

정보국보고에 의하면 시위대가 무장하면 왕이 궁으로 돌아 갈 거라고 했습니다.

다케다

역시 따냐 때문에 무모한 짓을 하고 있었어.

분노하는 눈빛의 다케다.

97. # 거리

경복궁의 담을 따라 조심스럽게 가면 멀리 검은 옷의 남자가 서있다.

그 남자를 따라 경복궁 문안으로 들어가는 따냐.

따냐의 뒤를 따랐던 일리치 멀리서 그 모습을 본다.

98. # 경복궁 안 / 건청궁 안

삭막한 궁궐 안, 지키는 병사도 지나다니는 나인도 찾아볼 수 없다.

폐허처럼 변한 궁 안을 가로질러 건물 앞에 멈춰선 따냐. 뒤를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따냐를 기다리고 있는 사내의 뒷 모습

따냐

오얏꽃을 전하러 왔습니다.

돌아서는 사내. 고종이다. 평상복을 입은 고종의 모습. 놀라는 따냐.

고종

공사관을 드나들던 별입시들이 모두 당했다. 공사관도 일본척자들의 손바닥이니 이젠 어디도 편 칠 않구나.

따냐

전하! 하지만, 이곳은 경계가 허술 합니다. 속히 공사관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고종

왕이 떠난 궁을 누가 관심인들 갖겠느냐? (궁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아버님의 손에 끌려 처음이곳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이 두려웠다.

<화면전환>

회상 - 대원군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어린고종의 모습. 겁에 질려 두리번거리고 있다.

대원군

(어린고종에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고종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두렵지 않습니다.

대원군

조선의 왕은 절대 두려워선 안됩니다. (책장에 가지런히 꽂힌 책을 가리키며) 저기 선왕들의 가르침이 항상 전하와 함께 있을 겁니다.

<화면전환>

책을 읽고 있는 어린고종의 모습

고종의 목소리

밤낮으로 읽고 또 읽었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

<화면전환>

회상에서 빠져나오면 고종을 보고 있는 따나의 표정.

고종

그때 왕후가 내게 왔다. 그녀는 두려워하지도 떨고 있지도 않았어.... 나를 믿는다고 했다. 그제서야 알게 됐지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을.... 내가 두려울 때 마다 그녀는 내 곁에 있었다. 나를 지켜줬지..... 그런데... 내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충혈된 고종의 눈. 그런 고종의 모습을 보는 따나.

<화면 삽입>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궁 안으로 들어온다. 멀리서 일리치가 보고 있다. 조용히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을 뒤따르는 일리치

<화면전환>

따나 앞에 선 고종.

고종

러시아말을 통역하던 별입시가 죽었다. 니가 대신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난다. 사내들을 보는 따나.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종에게 예를 갖추다.

고종

(따나에게)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다. 할 수 있겠느냐?

따나

(잠시 머뭇거리다가 침착하게) 네 전하 따르겠습니다.

고종

(따냐의 표정을 살피며) 두려워 마라! 왕후의 믿음이 널 지킬 것이다.

인사를 하고 검은 사내들을 따라나서는 따냐.

숨어서 광경을 지켜보는 일리치.

99. # 일본군 진영

다케다가 부하 나카무라와 특수 정예대원들을 모았다.

다케다

왕의 밀사들이 러시아 무기를 받기위해 국경으로 갔다. 한명도 남김없이 사살하라.

급하게 일본군 진영을 빠져나가는 나카무라와 부대원들.

100. # 일본 밀실

화가 난 듯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일리치. 다케다에게 달려간다.

일리치

부하들을 어디로 보낸 거야. (격하게) 어서말해 무슨 짓을 한 거야!

다케다

(일리치의 멱살을 뿌리치며) 조선의 책임자는 나야. 사카모토! 미우라상이 가비를 지지한다고 해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내 생각에 끼어들지 마! 난 하루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일리치

가비가 무기를 받기위해 직접 국경으로 떠났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국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따냐가 의심받아. 가비가 위험해져.

다케다

(피식) 일이 재밌게 됐네. 왕이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겠군.

일리치의 주먹이 다케다의 턱을 날려버린다. 쓰러지는 다케다

일리치

용서하지 않겠다. 다케다!

뛰어나가는 일리치. 비릿하게 미소 짓는 다케다.

101. #상황 교차 몽타주

/산길. 낭인들을 데리고 말을 달리는 나카무라.

/숲길. 남장을 하고 별입시들과 함께 말을 달리는 따냐.

/어두운 산길을 미친 듯이 말을 타고 달리는 일리치.

/접견실. 금희가 커피가 아닌 고종의 차 시중을 들고 있다. 걱정스러운 고종의 표정을 살피는 금희.

/새벽. 미친 듯이 강을 가로질러 건너는 일리치

/야영을 정리하고 조용히 숨을 빠져나오는 나카무라와 낭인들.

/숲길을 달리는 따냐와 별입시들

102. #강변

강기슭에 잠복해 있는 나카무라와 낭인들.

강반대편에 나타난 따냐와 별입시들. 얇은 바닥을 골라 천천히 강을 건넌다.

나카무라, 낭인들에게 몸을 숨기라고 지시한다.

그때 멀리서 짐마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다.

따냐 긴장하며 다가오는 마차들을 보고 있다. 무기를 장전하는 별입시들

망원경으로 살피는 나카무라.

다가오는 마차를 보고 있던 따냐, 놀란다.

맨 앞 마차를 몰고 나타나는 일리치.

나카무라 망원경으로 일리치의 모습을 확인한다.

따냐와 별입시들 앞에 차례로 서는 마차들. 마차에서 내려 다가오는 일리치

따냐도 말에서 내려 다가간다.

따냐(러시아어)

어떻게 된 거야. 왜 당신이 무기를 가져 온 거야.

일리치 (러시아어)

문제가 생겼어. 따냐가 오게 될 줄은 몰랐어.

따냐(러시아어)

무슨 말이야.

일리치(러시아어)

그냥 날 믿으면 돼! 금괴를 가져와. 거래는 거래니까.

따냐

(일리치를 보며 조선말로) 금괴를 가져와요. 무기를 확인하세요.

별입시들이 내려서 무기를 확인한다. 금괴를 가져오는 별입시.

일리치(러시아어)

(따냐를 보며) 곧 전투가 있을 거야. 총소리가 나면 사람들과 저 숲으로 달려.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쉬지 말고 바로 한양으로가.

따냐(러시아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전투라니

일리치(러시아어)

시간이 없어. 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따냐

(별입시들에게 조선어로) 모두 말을 타요! 총소리가 나면 저 앞 숲으로 달려요.

따냐의 소리에 놀라는 별입시들 일제히 말에 오른다.

나카무라 별입시들의 움직임을 보고 참을 수 없다는 낭인들에게 지시를 내린다.

그때 울리는 총소리

별입시들과 따냐는 숲으로 달린다. 무기 실은 마차들이 뒤따른다. 그 뒤에서 한발 늦게 터지는 폭약들.

뛰어나가는 낭인들. 그 뒤에 나타나는 러시아 군인들의 총이 불을 뿜는다.

일제히 쓰러지는 낭인들. 놀라는 나카무라. 강으로 도망치지만 총에 맞아 쓰러진다.

<화면전환>

따냐와 별입시들은 무기 실은 마차와 함께 한양을 향해 달린다.

총소리가 멀어지고 뒤를 돌아보는 따냐. 다시 달린다.

103. # 공사관.

/ 커피실에 우두커니 앉아서 즐고 있는 금희.

/ 혼자서 커피 잔을 보고 있는 고종. 커피는 마시지 않고 식어있다.

/ 커피실로 돌아오는 따냐. 금희가 즐다가 쓰러지며 놀란다. 웃어주는 따냐. 달려와 안기는 금희.

<화면전환>

고종에게 절을 하는 따냐. 따냐 없이 커피 잔을 앞에 둔 게 미안한 듯 슬쩍 커피 잔을 옆으로 물리며

고종

(미소 가득한) 너의 커피가 그립구나. 어서 만들 거라

고종의 그런 모습을 보고 미소 짓는 따냐, 눈에 눈물이 고인다.

104. # 미우라의 밀실

마주앉은 미우라와 일리치

일리치

왕이 곧 환궁할겁니다.

미우라

다케다가 널 의심하고 있어.

일리치

(답답한듯) 왕이 궁으로 돌아가게 하는 미끼였습니다.

미우라

다케다는 나카무라와 정예부대를 잃었다. 니가 따냐를 살리려고 무모한 짓을 했다고 생각해.

일리치

(단호하게) 따냐가 발각되면 왕은 더 깊숙이 숨었을 겁니다.

미우라

왕이 군대를 만들고 제국을 세우면 우린 전쟁을 해야 한다.

일리치

조선은 이미 일본의 상대가 안 됩니다.

미우라

우리 상대는 조선이 아니다.

일리치

(놀란 듯)...

미우라

조선이 스스로 항복 하지 않으면 우린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 된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항복을 받기 위해서다.

일리치

(단호하게) 전 왕을 공사관에서 끌어내기 위해 왔습니다. 그 다음은 다케다의 몫입니다.

미우라

(잠시 일리치를 보다가) 난 니가 차가워서 좋았다. 얼음 같은 피를 가졌어....

(혼잣말처럼) 뭐가 널 뜨겁게 만든 거지?

일리치

...

미우라

(결심한듯) 넌 지금당장 러시아로 돌아가라.

일리치

(불길한 표정으로 미우라를 보며)...

미우라

이작전의 끝이 궁금하다고 했지... 왕이다. 가비가 왕을 죽여야 끝난다. 그래야 러시아가 조선의 적이 된다. (고개를 저으며) 이미 넌 실패했어. 더 이상 가비작전은 없다. 가비는 내손으로 처리하겠다.

일리치

(단호하게) 조선의 항복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미우라

(버럭) 돌아가! 널 위해서야. 사카모토.

일리치

(차갑게) 왕을 죽여서 항복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미우라

(잠시 일리치를 보더니 조용히) 마지막 기회다. 실망시키지 마라 사카모토.

고개를 숙여 경례하는 일리치의 표정. 분노를 참는다.

105. # 상점 창고안

따나가 일리치와 나란히 앉아있다.

따나

일본이 날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어.

일리치

오해가 있었어. 이제 끝났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따나

어떻게 된 건지 사실대로 얘기해.

일리치

무기는 러시아 정보국이 제공하는 거야. 일본은 모르고 있었어. 다케다가 무기를 막으려고 사람을 보낸 거야. (따나의 시선을 피하며) 따나가 오는 줄 모르고 한 짓이야.

따나

(일리치를 노려보며) 난 은여우야. 사람들을 속이는 게 내 일이었어....

일리치

(따나를 돌아보면)...

따나

(담담하지만 슬프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데... 당신까지 의심해야 되면 내가 너무 비참하잖아.... 여기서 모든 걸 말해 줘.

일리치

일본은 조선군이 무장하고 왕이 황제가 되는 걸 경계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따나를 보호하려고 왕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해.

따나

내가 당신까지 위협하게 만들었군...

일리치

우린 둘 다 내릴 수 없는 배를 탄 거야. 내가 조선에 오게 했으니까. 내가 떠나게 해 줄게. 모두를 속일거야. (썩썩하게 미소 지으며 따나를 본다) 우린 그 방면엔 전문가잖아.

106. # 환궁 몽따쥬

대한문이 열리고 왕의 행렬이 궁 안으로 들어온다. 수많은 행렬 사이에 궁녀 복을 입은 따냐의 모습도 보인다. 공사관보다 넓은 커피실. 금희가 다른 궁녀들에게 따냐를 소개한다. 따냐를 경계하는 궁녀들의 눈빛.

따냐 목소리

궁에선 일본첩자들이 날 감시하고 있어.

다른 궁녀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의 따냐. 따냐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첩자 궁녀.

<화면전환>

궁의 접견실에서 왕과 마주앉아 커피를 마시는 따냐

일리치 목소리

일본은 따냐가 왕과 너무 가깝다고 생각해

따냐 목소리

그걸 원했던 거 아냐.

<화면전환>

별입시들의 회합에 커피를 만들고 있는 따냐. 러시아편지를 읽어주는 따냐.

일리치 목소리

따냐가 배신할까봐 두려운 거야. 그걸 이용해야 돼. 일본이 모든 걸 걸어야하는 계획을 만들었어.

<화면전환>

커피실에서 커피볶는 법을 금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따냐.

일리치 목소리

일본이 거부 할 수 없는 거래가 될 거야.

107. #궁 접견실

왕이 신하들을 만나고 있다.

신하2

러시아 군사 고문단의 훈련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여주는 시위대의 사열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전하!

안경수

아직은 아닙니다. 전하! 훈련은 끝났지만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군대이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 하셔야 합니다.

신하2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난 시위대의 위용을 널리 보이셔야 합니다.

안경수

일본군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병력과 화력이 필요 합니다 전하.

고종

시위대의 병력뿐 아니라 친위대와 지방대를 늘여 갈 것이다.

그동안 러시아 군사고문단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시위대의 사열을 허락한다.

각국의 공사들도 초대하여 궁에서 거행하라.

신하들과의 만남이 진행되는 화면위에 일리치의 목소리가 흐른다.

일리치 목소리

사열식행사에서 왕을 납치할거야.

108. # 어느 양반가 방안

안경수가 궁궐 지도를 놓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뒤에서 그들을 보고 있는 다케다.

안경수

왕이 사열에 나가지 않고 함령전에 머물기만 한다면, 사열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경비는 행사를 하고 있는 중화전으로 집중 될 겁니다. 그때 우리 병력이 함령전을 포위하고 왕을 경복궁으로 옮겨 감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조령을 받아내면 사열대에 있는 세자가 새 왕으로 옹립되는 겁니다.

친일신하1

지금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100명도 안됩니다. 이정도의 인원으로 거사를 치를 수 없소

안경수

시위대에서도 몇몇 장교는 우릴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본이 우릴 도울 겁니다.

다케다와 안경수의 시선이 교차된다. 고개를 끄덕이는 다케다.

109. # 궁안 뒤뜰

일리치의 목소리

왕이 사열식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

후원을 걷고 있는 고종의 뒤를 따르고 있는 따나.

고종

넌 고향을 떠나면서 조선과 나를 원망했겠지만... 니가 러시아를 떠돌지 않았다면 지금 내 곁에 없었을 것이다.

따나

....

고종

(넓은 마당을 가리키며) 내가 이곳에 서양에 있다는 가비 찻집을 세울까 한다. 너를 기념할 뭘까 만들고 싶구나.

따나

(갈등하며) 전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고종

말해 보거라

따나

이번 시위대 사열행사에 행차하지 마시옵소서.

110. # 창고 안

따나와 일리치

일리치

마지막 계획이야.

따나

납치가 아니야?

일리치

내말 잘 들어. 예정대로 왕을 납치하러 반란군이 올 거야. 하지만 왕은 납치되기 전에 죽는 거야. 반란군은 왕을 죽인 역적이 되는 거고. 궁은 반란을 진압하려는 일본군이 점령할거야.

따나

(놀라며) 왕을 죽인다고?

일리치

커피에 독을 타기로 했어. 일본과의 마지막 거래야.

따나

결국 일본이 원하는 게 그거였어?

일리치

일본은 조선의 항복을 원해. 이걸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따냐

(자조적으로) 나밖에 못하는 일이겠지...

일리치

우리 둘 다 사는 길이야. 다른 선택은 없어.

따냐

조선의 왕이야! 왕이 죽으면 조선도 없어!

일리치

왕이 살면 따냐가 죽어! 조선은 필요 없어. 내겐 따냐가 중요해!

따냐

일본을 어떻게 믿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일리치

따냐 이미 너무 많이 왔어. 왕을 죽여야 돼..

따냐.

(답답하다)...

일리치

일본이 궁을 점령하면 비밀통로로 궁을 빠져나와. 별입시 통로 끝에서 내가 기다릴 거야.

111. # 궁안 커피실

커피 찌꺼기를 들고 나가는 금희. 다른 궁녀들이 금희를 돕겠다며 데려가고 첩자궁녀가 커피실에 들어온다.

곧이어 주변을 살피며 들어오는 김홍륙. 첩자궁녀가 문 앞에서 주변을 살피준다.

따냐를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짓는 김홍륙.

김홍륙

(흰봉투를 건네며) 아편이다. 가비에 타거라. 절대 원인을 밝혀낼 수 없을 것이다.

따냐

러시아를 버리셨습니까?

김홍륙

(씩소) 왕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다

따냐와 눈이 마주치는 첩자궁녀

112. # 궁안 뜰

왕이 보여줬던 뜰을 보고 있다.

고종의 목소리

내가 이곳에 서양에 있다는 가비 찾집을 세울까 한다. 너를 기념할 뭔가 만들고 싶구나.

천천히 그곳을 훑아보는 따냐. 따냐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

따냐

(조용히 혼자말)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전하

113. # 상황 몽따쥬

/경운궁전경.

/궁궐 수비대들이 정렬해 있다. 대장의 지시에 따라 궁 안 밖으로 흩어지는 경비병들.

/세자의 문안인사를 받고 있는 고종.

/커피실. 멍하게 손을 놓은 채 거세게 타고 있는 화로의 불길을 보는 따냐.

/대안문이 열리고 러시아교관들과 함께 시위대가 궁 안으로 행진해 들어온다.

/궁을 지키는 병사들 사이로 은밀하게 붉은 띠가 돌려진다. 각자 붉은 띠를 왼팔에 묶는다.

/신하들이 등청한다. 안경수와 반란파 신하들이 섞여있다. 안경수는 붉은 띠를 묶은 병사들을 유심히 살핀다.

/거센 불꽃위에 커피를 볶고 있는 금희. 따냐가 지켜보고 있다. 힘들지만 신나하는 금희.

114. # 미우라의 밀실

미우라와 마주앉은 일리치.

일리치

(잠시 침묵)... 왕의 커피에 독을 탈겁니다.

미우라

(고개를 끄덕이며) 따냐가 만든 커피를 마시고 왕이 죽는다.

일리치

반란군이 왕을 죽인 걸로 만들면 일본군이 궁을 점령하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 커피의 독을 마시고 죽은 걸 확인한다면 러시아가 따냐와 김홍륙을 이용해서

반란을 주도한 것이 되는 겁니다.

미우라

너를 따르는 여자다. 따냐를 죽일 수 있겠느냐?

따냐

따냐가 죽어야 조선이 항복할겁니다.

115. # 일본진영 회의실

다케다가 일본장교들에게 명령을 한다.

다케다

반란군은 왕이 죽는 걸 모른다. 궁으로 통하는 모든 문과 통로에 낭인들을 배치해라.
도주하는 반란군이 있을 것이다. 한명의 증인도 살려두서는 안 된다.

일본장교들

네!

116. # 커피실

금희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따냐.

금희가 커피실을 나가자 뒤쪽에서 지켜보던 첩자궁녀가 조용히 따냐 곁에 온다.

첩자궁녀 따냐에게 눈짓한다. 품에서 흰 봉투를 꺼내는 따냐.

뜨거운 물 주전자에 흰색 가루를 타는 따냐. 녹아서 사라지는 가루.

117. #상황 몽따쥬

/각국의 공사들이 등청한다. 미우라도 비서와 함께 다른 공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궁으로 들어온다.

/일본군진영 문이 열리고 일본군이 출동한다.

/귀빈들이 마련된 자리에 앉는다. 슬쩍 자리에서 일어나는 안경수와 반란신하들

/붉은 띠를 한 병력들이 따로 빠져나와 함령전 쪽으로 이동한다. 병사로 위장한 일리치가 그사이에 섞여 있다.

/의장대 나팔이 길게 울리면 세자가 자리에 나타난다. 의자에 앉는 세자

/함령전을 향해가는 따냐. 준비한 커피가루와 커피기구, 잔, 김이 올라오는 약을 탄 주전자.

/사열을 시작하는 북소리와 함께 시위대 사열이 시작된다.

/일리치가 병사들 사이에서 빠져 나온다.

118. # 함령전 안

따냐가 들어온다. 왕은 미소로 따냐를 반긴다.

따냐

전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고종

(알았다는듯 심복과 금희에게) 물러가 있거라.

고종을 보는 따냐. 두 사람이 나가고

따냐

(미소 지으며) 먼저 전하의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고종

(알았다는듯 끄덕이며) 어서 가비를 만들 거라.

119. #상황 몽따쥬

/시위대의 행진이 이어지고 호위대가 바쁘게 움직인다.

/안경수와 반란신하들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진다.

/일본군이 궁 앞에 도착한다.

/러시아군 진영. 러시아 병력이 빠르게 출동준비를 한다.

/공사관의 전령이 베베르에게 달려와 귓속말을 한다. 놀라는 베베르 미우라를 돌아본다. 모른 척 사열을 보고 있는 미우라

120. # 함령전 안

커피를 준비하는 따냐. 따냐의 손길을 유심히 보는 고종

커피가 준비된 응 깔대기 위에 주전자의 물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따냐의 이마에서 땀이 맺힌다. 손위에 물방울이 떨어진다. 따냐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흐른다.

121. # 함령전 밖과 공간

/함령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금희와 심복. 그 옆에 첩자궁녀가 서있다.

/일리치가 주변을 살피며 어디론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금희가 눈치를 보더니 심복의 귀에 귓속말을 한다. 표정이 굳어지는 심복.

/함령전 문 앞 은폐물 뒤로 몸을 숨기는 일리치.

122. # 함령전 안 / 밖

따냐가 내려진 커피를 잔에 따른다. 두 잔을 준비한 따냐. 한잔은 고종 앞에 다른 잔은 자신 앞에 놓는다.

따냐의 눈이 총혈 되어있다. 고종이 따냐의 표정을 살핀다.

고종

무슨 일이나

따냐

전하의 가비를 꿀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종

(웃으며) 너로 인해 가비의 맛을 알게 되었으니 너의 공이 크다.

가비의 쓴맛이 이제 달콤하게 느껴지는구나.(잔을 든다)

고종이 커피 잔을 입에 가져간다. 따냐의 주먹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함령전 밖. 기다리고 있던 심복이 갑자기 칼을 뽑아 첩자 궁녀의 목을 친다.
그 위로 다급한 따나의 목소리

따나 목소리

(다급히) 전하!

/함령전 안

따나

(다급히) 독약입니다. 가비를 버리세요.

고종

(멈추며 놀란다) ...

따나

전하! 지금 곧 사열대로 행차 하십시오. 역적의 무리들이 이곳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과광! 그때 반대편 문이 열리면서 부제상궁과 금희가 뛰어 들어 온다.

부제상궁

전하 어서 자리를 피하십시오!

상궁과 눈이 마주치는 따나. 고개를 끄덕이는 상궁. 미소를 보내주는 따나.
커피를 단숨에 마시는 따나. 따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는 상궁. 놀라는 고종.

123. # 함령전 밖

함령전을 향해 몰려오는 반란병들.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듯 함령전의 모든 문이 닫힌다.
단발의 총소리. 숨어있던 일리치가 쏜 총이 안경수의 심장을 관통한다. 일리치의 총소리가 신호인 듯 다시 문
이 열리면서 준비된 궁궐수비대가 반란군들을 향해 총을 발사 한다. 쓰러지는 반란군들.

124. # 함령전 안

커피를 마시는 고종. 놀라는 따나가 커피 잔을 떨어뜨린다.

고종

(잔을 내리며) 니가 나를 구했다.

상궁과 금희

(놀라며) 전하!

고종

년 이곳에서 목숨을 버린 것이니 이제 조선을 구하거라.

따냐

(당황하며 금희와 상궁을 보며)...

고종

(편지를 주며) 러시아로 가거라. 일리치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따냐

(편지를 보고 놀라며) 어떻게...

고종

너를 살리겠다고 나를 찾아왔다.

125. # 회상 - 공사관 접견실

야심한 공사관접견실. 심복의 칼이 일리치의 목을 겨누고 있고 무릎을 꿇은 일리치가 고종을 올려다보고 있다. 분노를 참고 있는 고종의 이글거리는 눈빛.

일리치

전하의 꿈이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심복

어느 안전에서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칼끝이 일리치의 목에 상처를 낸다)

일리치

그 꿈을 깨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고종

(분노의 눈빛) 나를 찾아와 협박 하는 것이냐

일리치

제가 그 일을 포기한다면 제 애길 들어주시겠습니까?

고종

년 조국을 버린 일본첩자다. 니 애길 들을 이유가 없다.

일리치

따냐를 살려 주십시오

고종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따냐는 내 신하들을 죽인 첩자다.

일리치

일본이 전하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고종

이제는 일본을 배신하고 나를 지키겠다는 것이냐.

일리치

(고종을 노려보며) 따냐를 지키는 겁니다.

126. # 중화전 앞마당

나팔소리가 길게 울린다. 시위대의 우렁찬 경례소리가 울려 퍼지고 세자 옆에 고종이 나타난다.

다시 한 번 시위대의 예가 진행되고 각국의 공사들은 박수를 친다.

고종의 모습을 확인하는 미우라.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간다.

127. # 회상 - 공사관 접견실

분노의 눈빛으로 일리치를 보고 있는 고종.

고종

조선의 백성들에겐 아무런 죄책감도 없단 말이나?

일리치

헐벗고 굶주리면 배를 채우기 위해 나라를 버리는 것이 백성들입니다. 제국이든 조선이든 이미 이 나라의 주인은 전하도 백성도 아닙니다.

고종

너는 사랑을 구하겠다고 목숨을 걸었지만 난 목숨을 다해 백성을 지킬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조선의 주인은 백성이다.

일리치

일본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큰 나라와 어떻게 싸워야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첩자들과 돈을 뿌려서 러시아를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그때 전쟁을 일으킨다면 러시아를 이길 수는 없겠지만 조선을 얻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전하! 러시아를 이긴 일본을 막을 수 있습니까? 백성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고종

...

일리치

(편지를 내밀며) 러시아에 있는 일본첩자들의 명단입니다. 따냐를 러시아로 보내십시오. 일본의 첩자들을 막아야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하가 따냐를 살려야하는 이유입니다

128. # 함령전 앞

따냐가 궁녀 복을 벗고 남장을 하고 나온다.

고종의 목소리

비밀 통로로 가거라. 일리치와 별입시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129. # 비밀 통로 끝 양반집.

비밀 통로에서 나오는 일리치. 숨어있던 일본 낭인들이 일리치를 보고 달려온다.

일리치

반란군이 실패했다. 따냐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쳤다. 다케다에게 러시아 공사관을 경계하라고 전해라.

낭인 중 한명이 급히 말을 타고 떠난다.

다른 낭인들은 통로 안으로 들어가려하는데 순식간에 낭인들이 들고 있던 칼을 뽑아 목을 치는 일리치.

놀라는 낭인 두 명을 단칼에 처리한다. 뒤를 돌아보는 일리치. 숨어 있던 별입시들이 나타난다.

일리치와 함께 궁 안으로 들어가는 별입시들.

130. # 궁안 비밀통로 앞

따냐와 상궁, 금희가 뛰어온다. 통로 안에서 일리치와 별입시들이 나온다.

일리치 앞에 멈춰서는 따냐. 말없이 일리치를 본다. 울컥 감정이 폭발친다.

따냐의 손을 잡고 통로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일리치. 뒤따르는 금희와 상궁.

햇불을 든 일리치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따냐.

고종의 목소리

별입시들을 따라 향구로 가거라. 러시아군이 일본을 유인할 것이다.

통로 안 공사관과 양반가로 갈라지는 곳에 서는 별입시들.

일리치와 따냐를 양반가로 상궁과 금희를 공사관으로 일행을 분리하는 별입시들.

131. # 궁 앞

미우라를 태운 가마가 일본군 앞으로 온다. 다케다가 가마 옆으로 다가간다.

미우라

(차갑게) 전쟁을 준비해라 다케다

다케다

(절도 있게 경례를 하며) 네!

미우라 가마가 떠나려는데 전령이 달려와 다케다에게 보고 한다.

전령

따냐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 쳤습니다.

미우라

(다케다에게) 공사관을 막아라. 절대 살려줘선 안 된다.

다케다가 경례하고 급히 말에 오른다. 멀어지는 다케다의 모습을 보는 미우라. 생각에 빠지는 미우라.

132. # 공사관 /양반가 교차

/공사관. 러시아군이 가마를 호위하며 공사관을 나와 빠르게 이동한다. 멀리서 다케다와 일본군이 달려온다.

/별입시들을 따라 양반가로 나오는 일리치와 따냐. 별입시들이 준비한 말에 올라타려 하는데 몰려오는 낭인들. 별입시들과 함께 낭인들과 대적하는 일리치. 따냐를 말에 태우는 일리치.

따냐가 탄 말을 내보내려고 달려드는 낭인들을 무참히 쓰러뜨리는 일리치.

그때 일본군들이 총을 쏘며 몰려온다. 수적으로 밀리는 일리치와 별입시들.

다급해진 일리치 마치육탄으로 밀어붙이듯 낭인들을 향해 달려든다. 순간 일리치에게 밀리는 낭인들.

그 사이를 뚫고 따냐의 말이 빠져나간다. 낭인들의 칼을 맞는 일리치. 일리치를 돌아보며 달리지 못하는 따냐.

그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낭인들의 칼을 피하는 일리치.

일리치도 말에 올라타고 따냐 뒤를 따르는데 갑자기 날아드는 일본군의 총탄. 일리치의 말이 쓰러진다.

따냐. 말을 돌려 일리치에게 달려간다. 달려오는 일본군들.

따냐가 일리치의 손을 잡는다. 따냐의 뒤에 올라타는 일리치.

마치 일리치를 태우고 숲으로 도망칠 때처럼 고삐를 당기며 출발하는 따냐.

일리치

(웃으며) 다시 날 살려줘.

그때 반대편에서 관군들이 등장하고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다.

관군들 사이로 빠져나가는 일리치와 별입시 일행들

멀리서 망원경으로 빠져나가는 일리치와 따냐를 보는 미우라, 말을 탄 채 언덕위에서 두 사람을 보고 있었다.

일리치가 걱정되는 따냐 돌아보면

일리치

(웃으며) 괜찮아. 르윈스키가 기다릴 거야. 어서가!

고삐를 잡고 말을 달리는 따냐. 따냐를 안고 있는 일리치의 행복한 표정.

/일본군이 러시아 군과 가마일행을 막아선다. 가마에서 내려서는 상궁. 놀라는 다케다.

/숲을 지나 강변으로 나오는 별입시들. 뒤를 따르는 일리치와 따냐.

133. # 나루터

멀리 정박해있는 러시아 군함이 보이고 작은 배를 탄 르윈스키가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다.
나루터를 향해 달리는 일리치와 따냐. 멀리서 발견하고 손을 흔드는 르윈스키.
그때 총소리가 나고 달리던 별입시들이 쓰러진다.
옆에서 나타나는 미우라와 일본군. 놀라는 일리치와 따냐
일리치 고삐 잡은 따냐의 손을 같이 잡으며 한손으로 따냐의 허리를 꼭 감싼다.

일리치

(따냐에게) 앞만 보고 달려. (농담처럼) 절대 우릴 못 맞 줘.

일리치의 품을 느끼며 고삐를 강하게 쥐는 따냐. 따냐의 채찍이 말 등을 때린다. 더 속도를 내는 따냐의 말
미우라 장총을 들어 따냐와 일리치를 겨냥한다. 조준선위에 일리치와 따냐가 들어온다. 탕!
달리던 별입시가 쓰러진다.
다시 조준하는 미우라. 탕! 탕!
별입시들이 한두 명씩 쓰러지지만 일리치와 따냐의 말은 나루터를 향해 달린다.
미우라와 일본군이 뒤를 빠르게 쫓는다.
나루터에 도착한 따냐와 일리치 일행. 르윈스키의 배로 빠르게 옮겨 탄다.
일리치를 돌아보는 따냐. 따냐를 향해 미소 짓는 일리치. 풀썩 말에서 떨어진다. 놀라는 따냐
미우라의 총을 모두 맞은 일리치.

따냐

(쓰러진 일리치를 안고) 안돼! 정신 차려 일리치!

사람들이 뛰어와 일리치를 부축해서 배에 탄다. 미우라 일행의 총탄이 날아든다. 배가 나루터를 떠난다.
망원경 화면으로 떠나는 배와 쫓아오는 일본군이 보인다.
러시아 군함의 포가 일제히 발사된다. 일본군 앞 해변에 떨어지는 포탄. 쓰러지는 일본군. 물러나는 미우라.
따냐의 품에 안겨있는 일리치.

따냐

(울면서) 괜찮을 거야. 날 봐. (상처를 손으로 누르며)

일리치

(웃으며) 총 맞은 금괴를 팔았어.

따냐

(흐르는 피를 막으며 침착하게) 괜찮아 금방 치료하면 돼.

따냐의 손을 잡는 일리치. 일리치를 보는 따냐
따냐의 손에 만년필을 주는 일리치.
만년필을 보고 놀라는 따냐.

<플래시> 아버지의 만년필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어린 단이(따냐)의 모습이 스친다.

놀란 표정으로 일리치를 보는 따냐.

따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왜?

일리치

(웃으며) 마지막 아버지의 부탁이었어. 널 러시아로 데려오라고...

<플래시>

유리로 된 사랑방 창문을 열고 추운 바람 때문에 볼이 붉게 달아오른 종식이가 가쁜 숨을 고르면서 입김을 쉴 아낸다. 두 손으로 작은 비단 자루에 쌓인 가비를 내민다.

종식

가비차입니다. 나오리

짧은 순간 종식이와 눈이 마주치는 단이. 종식이는 스스로도 놀라 황급히 단이의 눈을 피한다.

/배워. 따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따냐

종식...

일리치의 상처에서 피가 울컥 솟는다. 숨이 격해지는 일리치

따냐

(상처의 피를 틀어막으며) 정신차려!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얘기해줘 어서... 어떻게 된 건지

<회상화면 몽따쥬>

/창 너머 단이의 모습이 그림속의 풍경 같다. 가비의 쓴맛에 입맛을 다시는 단이의 입술이 종식에게 새겨진다.

일리치 목소리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

/역관을 말에 올려주는 종식. 돌아서서 단이에게 인사하지만 단이는 아버지를 보고 있다. 씩씩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끌고 나오는 종식. 멀리서 아버지께 손을 흔드는 단이. 그런 단이 모습을 보는 종식.

일리치 목소리

악마가 있다면 그때 내목소리를 들었을 거야. 널 내 여자로 만들겠다고 소리쳤으니까.

/러시아 별판. 역관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일리치

일리치 목소리

내 마음을 알고 계셨어. 널 지켜달라고 하셨어.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뱃고동을 울리는 러시아배 갑판위에 단이가 보인다.
달구아범이 노를 젓는 작은 배위에 종식이 단이를 향해 손을 흔든다. 단이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었다.
종식은 양손을 더 크게 휘저으며 소리쳤다.

종식

아기씨 단이 아기씨!

하지만 너무 멀어 종식을 알아볼 수 없는 단이. 배는 빠르게 멀어지고 달구아범은 노 젓기를 포기한다.
종식이 눈에 눈물이 흐른다.

일리치 목소리

그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러시아에서 내가 타고 온 배로 니가 떠난 거야.

<화면전환>

옷을 찢은 형겅으로 일리치의 상처를 동여매고 있는 따냐.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일리치의 얼굴을 만져주는 따냐.

일리치

널 찾아 헤매다가 러시아별관에서 쓰러졌어... 죽어가는 나를 일본이 구했어... 널 찾기 위해 (숨이 가빠진다) 난 러시아 군인이 됐는데....

<화면전환>

/카페에서 얼음여우와 야수가 만나고 있는 장면 뒤에 멀리 다케다가 따냐를 보고 있다.

일리치 목소리

일본이... 널 먼저 찾았어.

다케다가 마주앉은 일리치를 돌아보면 얼음처럼 굳어버린 일리치가 따냐를 보고 있다.

일리치 목소리

내가 찾기도 전에... 넌 일본의 미끼가 된 거야....

/야수를 죽이고 금괴를 바닥에 던지는 일리치. 따냐가 그 금괴를 줍는다.

일리치 목소리

그때부터 널 지키기위해 모두를 속였어.

/화물칸과 객실을 용접하고 있는 인부들. 그 뒤에 일리치가 서있다.
/얼음여우의 어깨를 정확하게 조준하는 일리치
/정부국 방 안에서 따냐를 보던 일리치 모습

일리치 목소리

일본을 이용해서 러시아를 속였어.

/왕 앞에 무릎 꿇은 일리치

일리치 목소리

조선에선 일본을 속였어. 이제 불행은 여기서 끝났어.

<화면 전환>

일리치를 보고 있는 따냐. 억지로 울음을 참으며 일리치에게 미소 짓는다.

따냐

(안타깝게) 그래... 어긋나던 우리도 끝이야. 내가 옆에 있을 거야.

일리치

(미소 짓는데 울컥 피를 토하는)...

따냐

(일리치를 끌어안으면서) 안 돼!

따냐를 보는 일리치의 시선이 아련해진다.
일리치 시점에서 느린 화면으로 보이는 따냐의 모습. 울고 있는 따냐.
사랑스럽게 일리치를 보던 따냐의 표정들이 겹쳐진다.
일리치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피로 물들어 붉은 눈물이 흘러내린다.
따냐를 만지고 싶은 듯 천천히 일리치의 손이 따냐를 향해 올라가는데
특! 일리치의 손이 떨어진다.
그대로 굳어버리는 따냐의 표정.
따냐를 보고 미소 짓는 듯 굳어버린 일리치의 표정.

일리치 목소리

미안하단 말은 안하겠어. 마지막 까지 널 지킬 거니까.

일리치 얼굴에서 화면이 빠지면 빈 배에 혼자 누워 있는 일리치.
그 위에 햇불을 던지는 따냐.
기름이 타면서 배 전체가 불이 붙는다. 불속에 누워 있는 일리치.
햇불처럼 타오르는 배가 범선에서 멀어져 바다를 향해 간다.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고 있는 따냐.

134. # 범선 위

뉴욕 한가운데 작은 건물이다. 창가에 화분이 놓인 평화로운 집이다. 화면에서 빠지면 사진이다.

일리치 목소리

선물이야. 뉴욕은 복잡하고 시끄러울 거야. 세상의 중심이니까. 사랑해. 따냐.

일리치의 편지를 읽고 있던 따냐.

옆에 있는 뉴욕 사진을 본다. 멀어지는 조선하늘을 멍하게 바라보는 따냐.

<디졸브 아웃>

135. # 경운궁

<디졸브 인>

경운궁 마당에 도열해있는 신하들과 그 뒤를 에워싸고 있는 시위대의 모습들.

황제의 복장을 한 고종이 앉아있고 신하가 고종의 글을 낭독 한다. 신하들의 모습들과 나인들.

신하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정하고 이해를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으며, 왕후(王后) 민씨(閔氏)를 황후(皇后)로 책봉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한다.

<화면전환>

환구단에서 제를 지내는 고종의 모습.

신하 목소리

임금이 된 것은 하늘의 도움을 받은 것이고, 황제의 칭호를 선포한 것은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에 부합한 것이다.

<화면전환>

다시 경운궁마당. 고종의 낭독. 고종의 얼굴 클로즈업

고종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도모하며 교화를 시행하여 풍속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니, 세상에 선포하여 모두 듣고 알게 하라.”

<화면전환>

황제의 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 고종의 모습

136. # 경운궁 정관현

마치 유럽의 커피하우스 같은 실내 모습이다. 경운궁의 정관현 이다.

혼자 앉아있는 고종.

금희가 커피 두 잔을 따른다. 맞은편 자리는 비어있다. 빈자리를 내려다보는 고종.

탁자위의 잔만 남고 배경이 천천히 변한다.

현재 정관현의 모습이 보이고 관광객들이 지나다닌다.

탁자위에는 커피 잔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온다. 향기가 퍼지는 듯하다.

그 위로 조용히 타이틀 올라온다.

끝